

신앙의 해 심포지엄

**평신도의**  
**‘신앙의 해’ 삶의 성찰과 쉼**

일시: 2013년 11월 8일(금) 오후 2시 30분

장소: 청주교구 꽃동네 연수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신앙의 해의 의의와 신앙의 해 이후 평신도의 소명

-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중심으로 -

손희송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총무)

## 1. 신앙의 해의 의의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선포하신 '신앙의 해'는 2012년 10월 11일에 시작되어 올 해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끝납니다. 신앙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신앙의 해' 선포는 시의적절한 결정이었습니다. 전임 교황님께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발표하신 자의교서「믿음의 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쁨과 새로운 열정을 더욱 복돋우기 위하여 신앙의 여정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sup>1)</sup> 바로 여기에 '신앙의 해'가 선포된 취지가 잘 요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그분께 대한 열정'이 결여된다면 신앙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식어버리고 약화된 상황, 한마디로 신앙의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임 교황님께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다고 봅니다. 이런 신앙의 위기가 온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 2. 신앙을 위협하는 요인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님께서 '신앙의 해'를 시작하면서 발표하신 사목교서에서 “오늘날 유럽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은 과도한 과학적 사고방식과 개인주의”<sup>2)</sup>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럽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지구촌'이라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세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의 문제는 다소 시간차를 두면서 다른 지역의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교회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가 다소 있지만, 실상은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9월 13일에 한국교회사연구소 주최로 '신앙의 해'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의신학 교수인 박 준양 신부는 “오늘날 전전한 신앙을 저해하는 문화적 흐름과 운동에 관한 조직신학적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였습니다.<sup>3)</sup> 이 논문에서는 염 대

1) 교황 베네딕토 16세, 자의교서 「믿음의 문」, 2011, 2항.

2) 염수정 대주교, 「신앙의 해」 사목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앙의 해 안내서』, 2011, 16쪽.

주요님께서 오늘날 신앙의 위기를 가져온 요인으로 지적하신 과도한 과학적 사고방식과 개인주의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박 신부는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과학주의, 세속주의(혹은 상대주의) 그리고 신영성운동을 꼽으면서, 이 세 가지는 각기 독자적이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학기술만능주의에 빠져서 종교와 신앙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이들, 과학적 관점만을 배타적으로 고집하면서 종교와 신앙을 적대시하는 이들은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거의 필연적으로 세속주의 혹은 상대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절대적 진리나 가치를 부정하게 되면 모든 것을 상대화하게 되고, 결국은 개인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중심에 두는 개인주의로 귀착됩니다. 개인주의는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보장할 수 있는 돈에 집착하여 물신주의(物神主義)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이런 이들 중에는 내적인 공허를 느껴서 영적인 세계를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른바 신영성운동의 대표주자격인 뉴에이지가 표방하는 ‘자기만족 추구의 영성’, 즉 고통 없는 ‘안락한 구원’을 약속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무관심한 사이비 영성에 매력을 느낍니다. 인간은 절대자인 하느님을 거부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절대자로 삼아서 자기만족 추구에 열중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3. 신앙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

교회의 교도권은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주의, 세속주의(혹은 상대주의) 그리고 신영성 운동, 개인주의 등 신앙의 위협하는 요인들의 맹점과 폐해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고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구교회처럼 신앙의 열기가 식지는 않았습니니다. 여전히 가톨릭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타종교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1970-80년대 정도는 아니지만 예비신자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입교자와 거의 같은 숫자만큼 냉담자가 생겨나고, 적지 않는 신자들이 개인적 문제나 교회에 대한 실망 또는 사이비 영성이나 이단적 교설에 현혹되어 교회에서 떨어져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호감과 기대를 갖고 교회에 들어오지만, 작은 시련이나 유혹에서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약하고 신앙 체질이 허약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몸이 약하면 쉽게 병에 걸리듯이 허약한 신앙,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은 위협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앙 체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

3) 참조: 한국교회사연구소, 『2013 Symposium 한국 천주교회의 신앙 흐름과 과제』 (자료집), 97-146쪽.

염 수정 대주교님께서서는 ‘신앙의 해’ 사목교서에서 한국교회의 당면 문제인 허약한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섯 가지 표어에 담아 제시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교회의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 그것입니다.<sup>4)</sup> 2013년 한 해 동안 서울대교구의 대다수 본당에서는 본당 사정에 맞게 이 지침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초를 다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대교구 장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쌓아온 신앙의 기초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동안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방향을 정하셨습니다.<sup>5)</sup> 구체적으로는 ‘신앙의 해’를 위해 마련했던 다섯 가지 표어를 한 해에 한 가지씩 집중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기도, 교회의 가르침, 미사와 성사, 사랑의 봉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요소입니다. 향후 5년 간 순차적으로 이 다섯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성숙한 신앙인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행사로서의 ‘신앙의 해’는 끝나갑지만, 우리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수원교구 설정 5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셨던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 페르난도 필로니 추기경님도「평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앙의 해는 한 해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셨습니다. “신앙은 한 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 속에 우리가 세례를 통해 받은 선물, 곧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감사히 또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신앙의 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의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도록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사는 끝나겠지만 신앙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애정의 여정은 이제 시작됩니다.”<sup>6)</sup>

#### 4. 성숙한 신앙에로의 여정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이 받은 하느님의 은총에 깊이 감사하면서 기꺼이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노력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세상의 빛”(마태 5.14)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물신숭배, 경제적 양극화, 생명경시, 거짓, 폭력 등과 같은 어둠이 짙게 깔려있습니다. 이런 어둠은 하느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서, 그 핵심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앙의 해 안내서』, 2011, 17-19쪽.

5)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2014 사목지침서』, 7-8쪽.

6) 「평화신문」, 제1235호, 2013년 10월 13일, 3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느님을 떠나게 되면 세속주의(혹은 상대주의)로 흐르고 결국은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개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게 되면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보장하는 재물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물을 최대한 많이 모으기 위해서 비생산적인 사람(능력 없고 늙고 병든 이들)을 내치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가난한 이를 외면하기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며, 돈 벌기 위해서 거짓과 폭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힘과 매력 때문에 하느님을 등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 6,24)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이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산다는 것을 잘 알고,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 삽니다. 일찍이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구세주의 어머니 성모님이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들처럼 하느님을 중심에 두고서 다른 것을 부차적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날 우리사회에 가득 찬 어둠의 세력을 거슬러서 나눔, 정의, 생명, 정직,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바로 현대에서 순교정신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순교자들은 하느님만을 가장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여 그분을 목숨 바쳐 증거한 분들입니다. 순교자들의 신앙 증거에 세워진 한국 천주교회는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느님과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물론 비신자들까지도 이 태석 신부에게 감동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 맞게 순교 정신을 실천하여 오직 복음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고 살다가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들의 주요 활동 영역은 세상이라고 강조합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세속적 성격이 고유하고 독특하다. [...]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서 [...] 자신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며 복음 정신을 실천하고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하며, 또 그렇게 하여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증거로써 믿음과 사랑과 사랑으로 빛을 밝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sup>7)</sup> 그런데 세상에서는 재물의 힘이 교회 내에서보다 훨씬 더 막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돈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특별한 징표”가 되고 “독특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sup>8)</sup>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의 뿌리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충실하게 시킬 때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정을 “가정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부

7) 「교회 헌장」 31항.

8) 「교회 헌장」 35항.

모는 말과 모범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최초의 신앙 선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sup>9)</sup>

신앙의 전달과 훈련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정은 평신도들의 고유 영역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가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7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2014년 10월에 “가정 사목과 복음화”라는 주제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3차 임시총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 이전의 교황님들도 가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가족의 유대가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 천주교회의 평신도들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가 바로 가정의 가치를 지키고, 가정을 신앙의 요람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어려움에 처한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부모, 자녀들에게 “주일 미사 빠지지 말고 참례하라.”, “바쁘더라도 아침저녁 기도 꼭 바쳐라.”하고 권고하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보다는 아이들의 학업과 입시준비를 위해서 신앙생활도 뒷전으로 미루게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은 듯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울 것이고, 부모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신앙 안에서 헤쳐 나갈 때 자녀들 역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동안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뒤에는 하느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신 성모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성모님은 구세주의 잉태를 알리는 가브리엘 천사의 전갈에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는 순종의 응답을 하셨고, 계속 그런 순종의 자세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께 대한 순종을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정에서 부모가 성모님처럼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 가정은 제2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자라는 요람이 될 것입니다.

---

9) 「교회 현장」 11항.

## 한국 평협이 신앙의 해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다짐 실천 결과 보고

최흥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

### I. 서언

#### 1. '신앙의 해' 개막과 한국 평협의 다짐

“‘믿음의 문’(사도 14,27)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삶으로, 하느님의 교회로 들어갑니다. 하느님 말씀이 선포되고, 변화시키는 은총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 이 문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문에 들어선다는 것은 평생 동안 이어지는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sup>10)</sup>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개막 50주년을 1년 앞둔 2011년 10월 11일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자의 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을 통해 선포된 '신앙의 해'(YEAR OF FAITH)가 지난 2012년 10월 11일 세계 가톨릭교회에서 일제히 막을 올려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폐막된다. '신앙의 해'는 세속주의, 상대주의, 과학만능주의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신앙의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기로,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을 맞아 공의회 정신을 계승하는 시기로 선포된 것이다.<sup>11)</sup>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공의회의 정신을 계승하는 시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의회 문헌에 대한 깊은 연구와 학습이 필요하고, “있는 그대로의 공의회 문헌 자체로 돌아감으로써 참된 공의회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며 “공의회의 성과와 유산은 바로 공의회 문헌 속에 있다”고 강조한 교황의 지적에 공감하게 마련이다.

이제 그 후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보편 교회와 온 세계 지역교회들이 일제히 신앙의 해를 폐막하게 된 시점에서 '한국 평협의 신앙의 해와 새로운 복음화를 위

10) 교황 베네딕토 16세, 자의 교서 「믿음의 문」 1항 첫머리.

11) 신앙의 해 개막미사 강론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오늘날 교회가 새로운 복음화를 지향하고 신앙의 해를 기념하고자 할 때에 그것은 단지 기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공의회의 성과와 정신은 공의회가 열렸던 50년 전보다도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이러한 맥락에서 신앙의 해 개막이, “공의회로부터 시작되어, 바오로 6세 교황의 1967년 신앙의 해 선포,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2000년 대회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50년 동안 교회가 걸어온 총체적인 신앙 여정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공의회 이후 교회가 오늘날 직면한 위기 상황을 지적하면서, 세속적 문화의 영향으로 공의회의 가르침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취급되고 “만연한 세속적 정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신앙의 유산들을 의문시하고 진리로 여기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최근 수십 년 동안 영적인 ‘사막화’가 진행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나 교황은 “여전히 하느님께 대한 목마름,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한 갈증을 드러내는 징표가 수없이 많다”고 전체하고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려는 노력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노력은 공의회 문헌에 바탕을 둘 때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다짐 실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침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신앙의 해 개막 한 달 후인 2012년 11월 9일 튕짱 포교 베네딕토 수녀회 대구 수녀원 영성관(대구시 북구 사수동)에서 그 해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신앙의 해를 더 잘 살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가정기도를 열심히 바치는 등 다섯 개 항목의 '다짐문'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다짐 내용을 어느 정도로 실천했는지 수치로 결산할 수는 없지만, 한 해 동안 살아온 한국 평협의 제반 사업과 활동을 점검해봄으로써 그에 가능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다짐문은 그 다음날 10일 대구시 남산동 가톨릭 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평신도대회 감사 미사 봉헌예절 때 최홍준 회장과 각 교구 평협 회장, 단체장들이 함께 낭독하고 주례자인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를 통해 하느님께 봉헌했다. 다짐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평신도들은 교황님이 선포하신 신앙의 해를 살아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먼저 쇄신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신앙 선조들의 모범을 따라 신앙의 불꽃을 태우며 새로운 복음화에 앞장서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우리는 교회의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우리는 성화 소명에 응답하며 신앙 선조들의 시복·시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1. 우리는 생명문화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1. 우리는 '가톨릭교회 교리서'와 교회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이웃과 함께 친교의 삶을 살겠습니다.

2012년 11월 10일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신도대회 참석자 일동>

#### 2. 보고서의 구성

오늘 발표문은 먼저 제1장 서언에 이어 제2장 평협과 새로운 복음화에서 한국 평협 주관으로 실시한 신앙의 해 관련 행사와 사업을 다루고, 제3장 각 교구 평협과 교회운동, 사도직 단체들의 활동 항목에서 각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전국 단위 단체들의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며, 제4장 결어에서는 두 가지 제안을 담고자 한다.

## II. 평협과 새로운 복음화

2012년 10월 26일 오전에 교황청 공보실은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3차 정기 총회 폐막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리스도 신앙의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를 주제로 2012년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바티칸에서 열린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특별히 새로운 복음화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신앙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앙은 현대 문화의 상황에서 흐려질 위험에 놓여 있으며 또한 많은 세례 받은 이들의 신앙이 약화되고 있다. 하느님께서 사랑이심을



보여 주는, 주님과과의 만남은 오로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현대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친교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시작하여 다른 곳에서도 신앙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sup>12)</sup>

신앙의 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과 『가톨릭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반포 20주년이라는 두 기념일과 맞물려 있다. 교황청 새복음화촉진 평의회 의장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에 따르면 신앙의 해의 목적은 그 무엇보다도 신자들의 신앙을 북돋우려는 것이다. “신앙의 해는,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 이 신앙의 위기는 인간이 제 꾀에 빠진 인간학적 위기의 극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영적 빈곤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해는,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제공하는 기회입니다.”<sup>13)</sup>

한편 교황청이 발행하는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신문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가 제안하고 추진 중인 신앙의 해 5가지 실천사항 등 한국교회 신앙의 해 프로그램과 분위기를 2013년 1월 14-15일자에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평신도’의 몫을 강조함으로써 관심을 모았다. 이 신문은 한국교회 각 교구장 주교들의 2013년도 사목교서를 분석해 ‘한국 주교들의 캠페인, 신앙의 해 주역은 평신도’(Laici coreani protagonisti nell’Anno della fede)라는 제목으로 실은 기사에서 “한국교회는 올해 전체를 ‘새로운 복음화’에 투신하는 해로 정했다”며 “여기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했다.<sup>14)</sup>

신앙의 해 목적에 잘 부합하도록 한국 평협이 살아내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평협의 신원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첫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복음적 사도적 정신으로 회원 상호간의 협력

---

12) 제13차 세계 주교대의원회의의 폐막 메시지는 제2항 둘째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변화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분야들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새로운 방식으로 공동체적으로 실천하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그 열정과 방식, 그 표현에서 새로운”(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 제19차 총회에서 한 연설, 1983.3.9.,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3항) 복음화를 통하여 신앙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이 복음화는 “원칙적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교회로부터 멀어진 이들과 그리스도 신앙 실천과 무관하게 사는 이들을 향한” 것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 복음화는 그들이 “참된 기쁨과 평화로 삶을 채워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개인, 가정, 사회생활에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은총의 원천인 신앙을 재발견하도록 이끌어야”(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기총회 개막미사 강론, 2012.10.7., 로마) 하는 것입니다.”

13) 2012년 6월 21일 오전 교황청 공보실에서 ‘신앙의 해’(2012년 10월 11일~2013년 11월 24일)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의장이자 신앙의 해 조직위원회를 맡고 있는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와 사무차장 그레이엄 벨 몬시뇰이 참석했다. 피시켈라 대주교는 신앙의 해 전용 누리집과 로고를 소개하고 그 기간 동안 로마에서 열릴 행사 일정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자의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에서 …… 그리스도와 만나는 기쁨과 새로운 열정을 더욱 북돋우기 위하여 신앙의 여정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교황님께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14) 2013년 2월 3일자 국내 평화신문도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신문 보도 기사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신문은 “한국 주교들은 ‘세상을 복음화하려면 교회 자신이 먼저 복음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로 염수정 대주교가 말씀(성경)·기도·교회 가르침·미사·사랑의 실천 등 5가지를 핵심 실천사항으로 제시한 점을 들었다. 신문은 염 대주교가 사목교서에서 “신자들의 신앙 위기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매우 약한 데서 비롯된다. 신앙의 해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바란다”고 강조한 점에 주목했다.>

을 도모하고 경험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각 교구 평협과 단체들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회칙 제2조).

둘째, 한국 평협은 각 교구 평신도 사도직(단체)협의회와 주교회의가 인준한 단체들로 구성된 전국적인 협의체다(회칙 제3조). 천주교 신자들은 단지 주일에 성당에 나가 미사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회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회로 가꾸어 가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개인적, 또는 단체로 할 수 있다.

셋째, 한국 평협은 천주교 평신도들의 이런 사명을 격려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68년에 만들어진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그동안 ‘내 탓이오’ 운동과 ‘우리 상품 쓰기’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뚝바로’ 운동,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 운동 등을 통해 신뢰회복과 사회 공동선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 함양 등을 통한 평신도 교육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넷째, 평협의 중점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과 유대 강화
-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
- 평신도 재교육을 위한 협력
- 민족 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방안의 연구, 제안과 홍보
- 평신도 사도직 국제기구와 교류
- 기타(이상 회칙 제4조).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일원인 평신도들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 선포와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수행하는 온갖 형태의 활동을 평신도 사도직이라고 정의하는 것이고 보면, 세속 안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은 특히 “복음 선포와 인간 성화에 힘쓰며,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현세 질서를 완성하는 활동을 통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인간 구원에 이바지함으로써”(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평신도 사도직 교령’ 2항) 사도직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목적과 기능을 지닌 한국 평협과 그 회원인 각 교구 평협과 운동 단체들이 신앙의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 평협은 신앙의 해 개막 당일이자 ‘공의회’ 개막일인 2012년 10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막 5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사도직”을 개최했다.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주관으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성당에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한님성서연구소 주원준 연구원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성서적 의미’에 대해,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의 변화와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 경쟁력

평가원 정진호 연구원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세상의 변화와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 각각 발표했으며, 지정토론은 전봉순 수녀(예수성심전교수녀회), 정연정 신부(절두산 순교성지), 이정희 교수(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가 맡았다.<sup>15)</sup>

이 행사는 교회 일반의 관심을 모은 가운데, 주교회의 홈페이지와 여러 매체들의 호응 속에 홍보가 잘 된 편이며, 교회 안팎으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 개막 50주년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 신앙의 해 신앙생활 의식 조사와 신앙 체험 수기공모

이미 2012년 10월에 시작된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2013년 2월 16일 춘천에서 열린 2013년도 정기총회에서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지으면서 펼쳐지게 된 '신앙의 해 사업'도 있다. '신앙의 해 신자들의 신앙생활 의식조사'와 한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의 제안과 협찬으로 벌이게 된 '신앙의 해 신앙체험수기 공모' 사업도 그 가운데 하나다. 전국 각 교도소 수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등 모두 188편의 작품이 접수된 이번 수기 공모에서는 입원 환자 봉사를 통해 만난 하느님을 담담하고 솔직하게 그려낸 장기향(빈첸시오·서울 잠원동본당)씨의 '요셉 형제에 부르는 레퀴엠'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됐다. 공모전에는 특별히 하기도 했다.

한국 평협은 11월 22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거행하고, 최우수작품을 비롯한 30여 편의 입상작품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한다. '신앙의 해, 신앙체험 수기공모'는 전국 교구의 신자들이 이 시대에 만나고 체험한 하느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비신자들에게는 신앙생활의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의 10개 본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앙생활 의식조사 결과는 분석 없이 도표만을 여기에 옮겨본다.

---

15) 제1주제 발표에서 주원준 박사는 공의회의 중요 열쇳말 가운데 하나였던 '하느님의 백성'(populus dei)을 어원학적 기초에서부터 그 연관된 낱말들과 함께 검토하면서, 공의회가 제시한 우리 신앙 공동체의 뿌리를 되돌아보는 시도를 보였다.

주 박사는 특히 구약성경에서 제시된 '하느님 백성'의 근본적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몇몇 용어들을 통해 살피는 작업을 가지면서 공의회 이후의 구약신학적 논의를 재검토 했다. 주 박사는 이로써 구약성경은 '하느님 백성'이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라 종말론적 전망에서 열려있음을 증언한다는 점을 밝히는 등 구약성경의 '하느님 백성'의 의미를 재정리 했다. 이어진 제2, 3주제 발표에서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교회와 세상의 변화, 그와 관련한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내용을 집중 조명했다.

조광 교수는 '국내외 선교', '평신도신심과 사회운동', '북한교회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 항목을 통해 지난 50년간의 한국 현대교회사 흐름 속 평신도 역할들을 시대별·분야별로 나눠 검토했으며 이것을 토대로 향후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맡아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정진호 박사는 제3주제 발표에서 특별히 '바티칸공의회 정신과 경제적 자유의 평신도 영성 : 동아시아 복음화 사도직 전략' 제하의 발표를 통해 바티칸공의회의 궁극적 목표인 세상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주역으로 나서야 할 평신도의 자세와 역할을 자세히 고찰했다.

1. 신앙의 해가 왜 선포되었는지에 대해 아십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어렵듯이 알고 있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모른다.( )	N/A	총계
317	666	301	89	11	1384
23%	48%	22%	6%	0.8%	

2. 신앙의 해에 즈음한 교구나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부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참여한 적이 있다.( ) (2-1로 가시오)	② 참여한 적이 없다.( )	N/A	총계
463	819	102	1384
33%	59%	7%	

2-2. 참여하신 신앙의 해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매우 유익했다.( )	② 유익했다.( )	③ 평범했다.( )	④ 유익하지 않았다.( )	⑤ 전혀유익하지않았다.( )	N/A	합계
147	285	114	11	9	818	1384
26%	50%	20%	2%	2%	-	100%

3-1 이전보다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귀담아 들으며, 필사하거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그렇지않다.( )	N/A	합계
282	219	523	208	60	92	1384
20%	16%	38%	15%	4%	7%	

3-2 아침과 저녁기도를 통해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과 함께하고, 삼중기도와 식사기도를 빠짐없이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그렇지않다.( )	N/A	합계
314	218	450	268	65	69	1384
23%	16%	33%	19%	5%	5%	

3-3 이번 신앙의 해를 계기로 제2차바티칸공의회문헌과 '가톨릭교회교리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는 기회로 삼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그렇지않다.( )	N/A	합계
119	131	186	831	39	78	1384
9%	9%	13%	60%	3%	6%	

3-4이전보다 미사참례와 영성체를 자주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보다 적극적인 본당 소공동체나 단체 활동을 통해 일치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N/A	합계
132	167	396	475	131	83	1384
10%	12%	29%	34%	9%	6%	

3-5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열심히 선교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봉사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 사랑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N/A	합계
319	257	488	199	52	69	1384
23%	19%	35%	14%	4%	5%	

3-6 이번 신앙의 해는 앞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N/A	합계
239	295	571	171	40	68	1384
17%	21%	41%	12%	3%	5%	

3.7 신앙의 해가 왜 선포되었는지에 간해 아십니까?

1	2	3	4	5	N/A	합계
462	301	435	91	23	72	1384
33%	22%	31%	7%	2%	5%	

1. 본인이 현재 내고 있는 교무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	②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③ 형편상 못 내고 있다.( )	④ 다소 부담이 된다.( )	⑤ 내어본 경험이 없다.( )	N/A	총계
645	570	39	45	62	23	1384
47%	41%	3%	3%	4%	2%	

2. 본인이 현재 내고 있는 주일헌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	②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③ 형편상 못 내고 있다.( )	④ 다소 부담이 된다.( )	⑤ 기타 의견( )	N/A	총계
	775	553	14	18	1	23	1384
	56%	40%	1%	1%	0%	2%	

3. 선교의 의무를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① 매우 느낀다.( )	② 가끔 느낀다.( )	③ 별로 느끼지 않는다.( )	④ 전혀 느끼지 않는다.( )	⑤ 기타의 견( )	N/A	총계
546	667	135	19	3	14	1384
39%	48%	10%	1%	0%	1%	

4. 구역반과 소공동체에 참여하는 정도는?

① 항상 참여한다.( )	② 자주 참여한다.( )	③ 가끔 참여한다.( )	④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	⑤ 기타(무엇)	N/A	총계
519	246	266	328	8	16	1383
38%	18%	19%	24%	1%	1%	

5. 십계명을 어느 정도 준수하십니까?

① 매우 준수한다.( )	② 준수하는 편이다.( )	③ 준수하지 않는다.( )	④ 잘 모르고 있다.( )	⑤ 기타(무엇)	N/A	총계
200	1038	78	40	9	19	1384
14%	75%	6%	3%	1%	1%	

1. 낙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모든 선택권은 여성에게 있다.( )	② 부부간에 원하지 않음은 임신의 허용해야 한다.( )	③ 강간, 근친상간, 근친간의 허용해야 한다.( )	④ 낙태는 살인행위이다.( )	⑤ 모르겠다.( )	⑥ 기타의 견( )	N/A	총계
96	208	442	530	72	7	29	1384
7%	15%	32%	38%	5%	1%	2%	

2.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불임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 )	② 판단은 부부에게 맡겨야 한다.( )	③ 교회의 지정금지 정책을 모르고 있었다.( )	④ 교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즉 인정해야 한다.( )	⑤ 모르겠다.( )	⑥ 기타의 견( )	N/A	총계
184	738	299	45	31	62	25	1384
13%	53%	22%	3%	2%	4%	2%	

3. 안락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	② 경제적 압박이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③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의견( )	N/A	총계
733	203	238	169	17	24	1384
53%	15%	17%	12%	1%	2%	

4. 사형제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 )	② 흉악범죄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 )	③ 흉악범죄가 사라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해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의견( )	N/A	총계
453	491	303	107	8	22	1384
33%	35%	22%	8%	1%	2%	

5. 일상생활에서 천주교 신자라는 의식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① 항상 의식하고 생활한다.( )	②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	③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활한다.( )	N/A	총계
1216	147	5	16	1384
88%	11%	0%	1%	

6.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직자의 세금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성직자도 국민의 납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② 어떤 일이 있어도 성직자의 납세에 반대한다.( )	③ 아직 조세제도가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시기상조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의견( )	N/A	총계
781	130	221	207	12	33	1384
56%	9%	16%	15%	1%	2%	

1. 세계 교회는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하고, 교황님이 신앙의 해를 선포할 만큼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러한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1	2	3	4	5	N/A	총계
390	555	235	135	8	61	1384
28%	40%	17%	10%	1%	4%	

## “새로운 복음화는 나 자신부터”

### 한국 평협, 제45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제45회 평신도주일(2012. 11. 18)을 맞아 각 교구 평협을 통해 전국 각 본당에 제공한 강론자료 에서 평신도가 자신부터 복음화함으로써 '새로운 복음화'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형제를 사랑하며 신앙의 불꽃을 태웁시다'라는 제목의 강론자료에서 한국 평협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화하는 것이 새로운 복음화라며, "새로운 복음화의 일차적 대상은 믿음이 약한 우리 이웃"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세례를 받았지만 교회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교적 삶의 지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16)</sup> 2013년 11월 17일 제46회 평신도주일 강론자료는 '서로 사랑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고, 용서와 평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신앙의 해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한국 평협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기도생활과 교회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한편 성사생활을 더 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신앙의 해를 선포한 교황 자의교서 '믿음의 문' 책자를 단체로 구입해서 전국 모임 때 참가자들에게 배포했으며, 서울평협과 같이 회합 때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10분씩 함께 읽기도 했다.

## Ⅲ. 각 교구 평협과 교회운동, 사도직 단체들의 활동

### ‘신앙의 해’에 드리는 묵주기도

2012년 10월 7일 로사리오 축일 아침 삼종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베네딕토 16세 당시 교황은, 묵주기도의 성모님께 전통적으로 해마다 드리는 ‘간청’이 지금 폼페이 성모 순례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이 기도가 전 세계의 수많은 신자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음을 일깨웠다. “우리도 이 공동 기도예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기에, 저는 신앙의 해 동안 모든

16) 2012년 11월 17일자 '가톨릭신문'과 '평화신문'은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 한국 평협은 이어 "신앙의 해에 새로운 복음화를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 뜻인 복음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마태 22,34-40 참조)는 가장 큰 계명을 지켜야 하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요한 4,21)고 지적했다. 한국 평협은 또 "현 순간 내 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웃이 곧 내 형제요 자매"라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등 가정과 일터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 뜻을 실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평협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정직하게 살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교통법규 하나라도 잘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가짐이 오늘을 사는 평신도에게 꼭 필요한 덕목임을 상기시켰다.>



이가 묵주 기도를 정성스럽게 바칠 것을 권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묵주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들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내맡기게 되고, 점차로 복음에 동화되어 참으로 복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선임자들, 특히 10년 전에 교황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 (Rosarium Virginis Mariae)를 발표하신 요한 바오로 2세 복자의 뜻을 따라, 신자 여러분이 혼자서 또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묵주 기도를 바칠 것을 권유합니다. 묵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모님의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 서울평협, 7월 1일 오후 7시 명동성당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서울대교구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위원장 최창화 몬시뇰)와 공동으로 7월 1일 오후 7시 명동주교좌성당에서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및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묵주기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하느님의 종' 순교자 124위와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을 기원하는 전국적인 묵주기도 봉헌 운동에 불을 지피기 위한 이날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묵주기도의 밤 취지와 배경 설명 △오라토리오 '최양업, 사랑의 사도여' 발췌 연주 △묵주기도(8단) △성모 호칭기도와 순교자 시복시성기도 △염수정 대주교 축복 순으로 진행됐다.

### 제주교구 2013 묵주기도의 밤

제주교구는 제주 4·3희생자 1만3887명의 각명비가 모여져 있는 4·3평화공원 야외광장에서 10월 10일 오후 9시 '2013 묵주기도의 밤' 행사를 열었다. 치명자의 모후 레지아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자매교구인 일본 교토교구 순례단 18명을 비롯해 교구 사제·수도자, 평신도 등 2300여 명이 함께했다. '새로운 여인 성 마리아'를 주제로 열린 묵주기도의 밤은 제주 4·3 영상물 상영, 교구장 강우일 주교의 개회인사와 화관식, 꽃 봉헌, 사제단 공동집전 미사, 합동 묵주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강론을 통해 “다시는 슬픈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주십사고 성모님께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 걷기'에 동참

서울대교구 평협은 서울대교구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와 함께 금년 선포된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을 신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10월 28일 평협 임직원과 순교자현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서울대교구 성지순례길 걷기'에 참여했다. 이날 오후 1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명동대성당에 이르는 '말씀의 길' 7.9km 걷기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25일 오후 1시에는 '생명의 길'인 가회동성당~경기감영터까지 6km를 걸을 계획이다. 절두산순교성지~삼성산성지에 이르는 '일치의 길'은 12월 중 걷게 된다.

## 서울평협, '하느님의 종' 시복시성을 위한 전국 성지순례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12년 10월 18~20일 명동성당을 출발해 청양 다락골·초남이·숲정이·천호·여사울 성지 등 전국 주요 순교성지와 성당 10곳을 순례하는 '하느님의 종 시복시성을 위한 전국 성지순례' 행사를 실시했다. 78명의 참가자들은 순례 내내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을 기원하며 손에서 묵주를 놓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성지를 2박 3일 순례하며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sup>17)</sup> '하느님의 종' 순교자와 증거자 등 모두 125위의 시복시성을 청원하며 마련된 이번 성지순례는 순교극을 통해 성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보고 성인들이 만난 주님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 서울평협, 신앙의 해 제주 도보순례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신앙선조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하는 발걸음을 이어갔다. 서울평협은 2013년 5월 16~18일 '신앙의 해 제주·추자 도보성지순례'를 진행했다. 평협 임원과 일반 신청자 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순례 여정은 황사영(알렉시오, 1775~1801)의 아내 정난주(마리아, 1773~1838)와 아들 황경한의 발자취를 따라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첫날 용수성지를 거쳐 올레 11코스과 연결되는 대정성지까지 약 8.5km를 도보로 순례했다. 추자도의 황경한 묘를 참배할 예정이었던 둘째날 일정은 풍랑주의보로 인해 취소됐다. 참가자들은 대신 김기량 순교현양비와 황사평 성지를 순례했다. 일행은 마지막 순례지인 관덕정 방문에 앞서 우도공소에서 파견미사를 봉헌했다.<sup>18)</sup>

## 대구 순교자 현양미사 … 도보성지순례도 펼쳐

대구대교구는 2013년 9월 27일 오전 11시 경북 칠곡군 한티순교성지에서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주례,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시성을 위한 순교자 현양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에는 교구 신자 1500여 명이 참례했으며, 미사 후에는 서태순 베드로 등 성지에 묻힌 순교자 묘소에서 기도를 바쳤다. 한편, 다음날인 28일에는 대구평협 주관으로 '하느님의 종 124위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가 개최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북 칠곡군 가실성당에서 신나무골 성지로 이어지는 순례길을 걸으며 순교신심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17) 순례 중 평화신문 인터뷰에서 최홍준 회장은 "신앙의 해를 맞아 서울평협 전국 성지순례가 전국 평신도 단체들을 위한 하나의 순례모델이 돼, 여러 단체가 일 년 내내 성지를 순례하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순례자들을 성극에 참여시키는 등 신자 참여를 좀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례에 참가한 이화우(카리타스, 가톨릭대) 교수는 "순교성지에서 만나는 순교자들 신앙과 열정에 말로 표현하기 힘든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성지를 순례할 때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되물으며 신앙을 다잡게 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가톨릭신문 인터뷰에서 최회장은 "이번 순례는 참가자들이 순교자들을 통해 성인들이 만난 주님을 알고 느끼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했다"며 "참가자들이 자신이 느낀 바를 나누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순례가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 순희송 신부는 이날 미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각자 고유한 임무를 받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시선이며,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끄시는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 제4회 '38선 티모테오 순례길' 도보 순례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2012년 10월 13일 오전 9시 30분, 티모테오 순례길을 도보로 순례했다. '티모테오 순례길'은 양양 성당에서 송이 밸리를 지나 오상영성원(예수고난회)을 거쳐 명지리까지 총 20km에 이르는 길로, 6·25 전쟁 중 이광재(티모테오) 신부가 목숨을 걸고 38선 이남으로 남하하는 사제와 신자들을 인도한 길이다. 춘천교구는 2009년 교구 설정 70주년과 이광재 신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순교신심을 본받고자 처음으로 도보 순례를 시작한 이래 매년 10월에 실시하고 있다. 2013년 10월 8일에는 서울대교구 평협 임직원 23명도 함께 순례했다.

## 인천교구 '신앙의 해' 여정 아카데미

인천교구는 신앙의 해를 맞아 2013년 10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신앙의 해' 여정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오전에는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오후에는 교구청 4층에서 열리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비 1만원씩 책정된 이 여정에는 10월 17일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박선용 신부가 "신앙의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24일에는 최기산 주교가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자의교서 '신앙의 문'-신앙의 해 선포 배경과 의미"에 대해, 31일에는 정신철 주교가 "가톨릭교회 교리서와 현대의 그리스도인-세상과 교회에 선포하는 하느님의 진리"에 대해 강의하는 일정이다.

##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시복시성 기원 성지순례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는 2012년 11월 5~6일 하느님의 종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성지순례를 개최했다. '신앙의 증인이 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특별히 순교자의 삶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의 멘토로 삼는 '순교자의 밤'(하느님의 종 125위와의 만남)이 펼쳐져 눈길을 모았다. 참가자들은 각자 하느님의 종 125위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뽑아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입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협의회는 5일 황새바위·갈매못·해미성지 등을 순례한 뒤 6일 여사울성지에서 솔뫼성지까지 15km는 도보로 순례한다. 6일 오후 3시 솔뫼성지에서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 주례로 순교자 현양미사를 봉헌했다.

## 각 교구별 순례길

시복시성 운동과 '제주 올레'에서 비롯된 걷기 열풍이 결합하면서, 교구마다 도보순례길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주교회의 홈페이지가 안내하고 있는 2012년 11월 현재 개발된 교구별 순례길은 다음과 같다.

- ▶서울대교구: 명동주교좌성당 - 서소문-용산 당고개-절두산 순교성지(15km)
- ▶춘천교구 38선 도보순례: 양양 성글라라수도원 - 양양성당(12km)/

티모테오길: 부소치재-38전망대-현북초등학교(12km)

▶대전교구 내포 도보순례: 솔뫼-합덕성당-신리-여사울(16km)

▶수원교구 디딤길: 은이성지-미리내-요당리-남양성모성지-수리산-

수원성지-손골-남한산성-구산-천진암-양근성지

▶의정부교구: 순교자의 길(의정부성당, 황사영 묘, 남종삼 묘역),

사목방문의 길(동두천역, 신암리성당, 갈곡리공소, 의정부주교좌성당, 광적성당 경유)

▶대구대교구: 대구사랑길(교구청, 관덕정 경유),

희생과 바침의 길(신나무골-한티), 나눔과 봉사의 길(진목정)

▶부산교구: 시복시성 도보순례: 수영 장대골순교성지-오륜대순교자기념관(14.7km),

예비신자 단체 견학: 광안성당-수영장대 순교사적지-남천주교좌성당-교구청(문의 051-629-8751)

▶청주교구: 배티성지-백곡공소-진천성당-증평성당-괴산성당-연풍성지(84.6km)

▶광주대교구: 임동주교좌성당, 노안성당, 나주성당, 몽탄성당, 구례성당, 곡성성당 등 경유 (총 8코스)

▶전주교구 아름다운 순례길: 천호성지-여산-나바위-초남이성지 경유(240km)

▶제주교구: 김대건길, 정난주길, 김기량길, 신축화해길, 하논성당길, 이시돌길 등 총 6코스 68km/

성지 경유 올레길: 2코스(성산포 매괴동산), 11코스(정난주 묘), 13코스(김대건 신부 표착기념관)

## 신앙의 해 특강

서울대교구는 2012년 12월 3일~17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명동 주교좌성당에서 ‘신앙의 해’ 기념 대림 특강을 실시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나자렛 예수」1, 2를 바탕으로 ▲ 3일 조규만 주교의 ‘우리는 왜 나자렛 예수를 믿는가?-신앙의 해와 「나자렛 예수」 1·2 입문’ ▲ 10일 박병규 신부의 ‘하느님이신 예수-「나자렛 예수」 1 해설’ ▲ 17일 박병규 신부의 ‘주님이신 예수-「나자렛 예수」 2 해설’ 순으로 진행했다.

안동교구는 12월 7일(금)과 14일(금) 오후 7시 30분 목성동 주교좌성당에서 신앙의 해 여정 특강을 했다. 7일(금)은 전장호 신부가 “신앙의 해와 가톨릭교회교리서”에 대해, 14일(금) 신대원 신부가 “신앙의 해와 순교영성 그리고 증거의 삶”에 대해 각각 강의한다. 춘천교구(교구장 김운회 주교)는 7일(금)과 14일(금) 오후 7시 30분 죽림동 주교좌성당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와 우리의 신앙”을 주제로 신앙의 해 특강을 실시했다.

성 바오로 딸 수녀회는 12월 14일(금) 오후 7시 부산 대청동 바오로딸서원에서 “하느님의 얼굴과 예수”를 주제로 신앙의 해 특강을 했다.

### 3월 4일 서울대교구 '공의회 학교' 개강

서울대교구(교구장 염수정 대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2013년 3월 4일(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과 정신을 배우는 공의회 학교를 개강했다. 3월 4일부터 6월 10일 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신학교 교수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대해 강의했다.<sup>19)</sup>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개설 초기에는 '평신도학교-공의회과정'이라는 이름으로 1년, 2학기제(3~6월, 9~12월), 28주 강의로 과정을 구성했으나 2012년부터 '공의회학교'라는 이름으로 상반기 한 학기(3~6월) 과정으로 개편했다. 처음에는 공의회 문헌 16개를 모두 다뤘으나 1학기 과정으로 축소 개편되면서 14개 문헌을 배운다. 1년이라는 긴 과정이 공의회 문헌을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자칫 흥미를 잃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신자 모두가 공의회를 온전히 숙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의회 문헌 공부는 신앙을 더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보약과 같다.

공의회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기는 2007년 이후 조금씩 식어가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한 해 50~60명 수준에 머물던 수료 인원이 2012년 237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의 단체 수강도 적지 않은 몫을 했지만 신앙의 해를 계기로 공의회학교가 다시금 주목받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166명이 수강해 132명이 수료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전 과정을 수료한 이는 674명이며, 미수료자를 포함한 전체 수강생은 1575명이다.<sup>20)</sup>

### 의정부교구, 마산교구 복음화학교 개강

의정부교구(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2013년 3월 6일(수) 복음화학교를 열었다. ▲ 6일(수) 신앙교육원 대강당 ▲ 7일(목) 덕소 성당 ▲ 26일(화) 호평동 성당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8시, 하루 두 차례 열린다. 7일(목) 오후 8시 강의는 특별히 이한택 주교가 맡았다.

마산교구(교구장 안명옥 주교)는 3월 7일(목) 명례성지에서 “우리가 예수를 사는 이유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믿음”을 주제로 명례 성지 복음화학교를 개강했다.

19) 강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3월 4일 '보편공의회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김성태 신부) ▲ 3월 11일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정의철 신부) ▲ 3월 18일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 「놀라운 기술」'(김민수 신부) ▲ 3월 25일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헌장 「하느님 말씀」'(조규만 주교) ▲ 4월 8일 '교회에 의한 교의헌장 「인류의 빛」'(신정훈 신부) ▲ 4월 15일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박규흠 신부) ▲ 4월 22일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활동」'(최홍준 회장) ▲ 4월 29일 '수도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유수일 주교) ▲ 5월 6일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 「사제품」'(손희송 신부) ▲ 5월 13일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일치의 재건」'(신정훈 신부) ▲ 5월 20일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김준철 신부) ▲ 5월 27일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조영관 신부) ▲ 6월 3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입각한 종교간 대화'(노길명 교수) ▲ 6월 10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한국교회'(조광 교수, 수료식(미사)).

20) 공의회학교에 직접 참가하지 못했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다. 기존 1년짜리 강의(2009년)와 현재 1학기 강의(2012년)가 서울평협 누리방(www.clas.or.kr) 공의회학교 '강의동영상' 게시판에 모두 올라와 있다. 또 서울평협이 발행한 「공의회학교 1·2권」(가톨릭출판사/각 1만 원)을 통해 책으로 공부할 수도 있다. '공의회를 공부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

## 2013년 청주교구 생명학교 개강

청주교구(교구장 장봉훈 주교) 가정사목국은 2013년 3월 6일(수) 청주, 11일(월) 충주에서 생명학교를 개설했다. 생명학교는 성과 생명교육에 관심을 가진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인간 생명 수호를 위한 봉사자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한 것. 생명학교를 통해 성과 생명의 주인이 하느님'이심을 선포하며, 성과 생명이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죽음의 문화에 맞서 생명의 문화를 전파하고자 한다.

## 광주대교구 주교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해' 사순특강

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2013년 3월 13일(수) 오후 7시 30분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주교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해' 사순특강을 시작했다. ▲13일(수) 최창무 대주교(전 광주대교구장)가 '신앙의 해와 사순절' ▲ 20일(수) 옥현진 주교(광주대교구 보좌주교)가 '사순절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 27일(수) 김희중 대주교가 '사순절과 신앙생활'에 대해 강의했다.

## 광주평협, 신앙의 해·성년 기념 특강·영성운동 체험 사례 발표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13년 10월 19일 오후 2시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신앙의 해 및 교구 성년 기념 특강 및 체험사례 발표' 시간을 가졌다. 황양주 신부(광주 삼각동본당 주임)가 '평신도 열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이후 본당·가정·봉사 부문의 우수체험수기들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sup>21)</sup>

광주대교구는 지난 2012년 10월 교구 설정 75주년을 맞아 교구 성년을 선포하고 '평화를 빕니다'라는 표어 아래 영성운동을 전개해 왔다.

## 광주대교구 '가정 성화를 위한 미사와 특강'

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2012~2014년을 '가정의 해'로 선포하고, 매일 첫째 월요일 오후 7시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가정 성화를 위한 미사와 특강'을 개최한다. 1월 7일(월) 옥현진 주교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정교회' 강의에 이어 12월까지 계속된다.<sup>22)</sup>

21) 본당 부문에서는 조상현(안드레아·57·광주 학운동본당)씨가 본당에서 행해진 사례들을 소개했으며, 가정 부문에서는 김향자(마리나·64·광주 광천동본당)씨가 '느릿느릿 성가정의 길로'라는 제목의 수기를 발표했고, 봉사 부문에서는 문영배(고데프리도·62·광주대교구 연향동본당)씨가 예비신자 교리교사를 하면서 겪은 체험담을 발표했다.

22) △ 2월 4일 가톨릭교회의 생명윤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김수정 교수) △ 3월 4일 인간생명 문화(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송열섭 신부) △ 4월 8일 성가정-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청주교구 가정사목국장 이준연 신부) △ 5월 6일 가정과 경제(포콜라레 손엘디) △ 6월 3일 신앙의 교사, 부모(인보 성체 수도회 가정교리연구소장 한미란 수녀) △ 7월 1일 말씀 안에서 하느님 만나기(수원가톨릭대학교 이인옥 성경연구실장) △ 8월 5일 가정에서 바치는 기도(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수도회 서현승 신부) △ 9월 2일 가정과 환경(수원교구 성 필립보 생태마을 황창연 신부) △ 10월 7일 가정 안에서의 순교(장성 프란치스코의 집 김기덕 수사) △ 11월 4일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서울대학교 김환 교수) △12월 2일 행복한 신앙, 행복한 가정(전주교구 가정사목국장 이금재 신부) 순서로 진행된다.

## 한국 레지오 마리아 60주년 특강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는 2013년 5월 6일(월), 13일(월), 20일(월) 오후 1시 광주대교구 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한국 레지오 마리아 도입 60주년 기념 특강을 했다. 강의를 옥현진 주교와 김혜운 수녀가 맡았다. 25일(토) 오후 2시 광주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전국 선교 신앙 대회 경축미사 및 기념식을 거행했다.

##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다짐

###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제16차 울뜨레야

서울대교구 꾸르실료는 2013년 10월 9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제16차 서울대교구 울뜨레야를 거행하고, 꾸르실리스따 사도직 사명을 재확인했다.<sup>23)</sup>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을 주제로 거행된 이날 울뜨레야에는 꾸르실리스따 5000여 명이 모여 한국 꾸르실료의 지난 46년을 돌아보는 영상물을 시청하고, 롤료(발표)와 친교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교구장 염수정 대주교와 조규만(서서울지역 교구장 대리) 주교, 유수일(군종교구장) 주교를 비롯한 사제단 30여 명이 함께했다.

## 청주·안동교구 교리경시대회

신앙교리성은 ‘신앙의 해를 위한 사목권고를 담은 공지’를 마련하였다. 공지는 2012년 1월 6일 주님 공현대축일에 승인받아 그 다음날인 1월 7일에 공표되었다. ‘신앙의 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더욱 폭넓고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하고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 공지는 일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사도좌의 권고에 따라 청주교구는 신앙의 해를 맞아 2013년 10월 6일 충북 청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교리경시대회를 열었다.<sup>24)</sup>

안동교구는 10월 13일 오전 10시 농은수련원에서 교구 교리경시대회를 개최했다. ‘신앙의 해’와 「가톨릭 교회 교리서」 반포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교리경시대회에는 26개 본당에서 선발된 12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교리 강연, 교리 퀴즈, 교리 윗놀이 등 교구 사목국이 준비한 프로그램에 따라 각 본당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본당 교리의 날’ 행사를

23) 서울 꾸르실료는 이날 올해 발족한 해외성소장학사업에 주님께 봉헌하며 사제 양성에 힘쓰는 서울 대신학교에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사제 양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교회를 돕고자 발족한 서울 꾸르실료 해외성소장학회는 현재 서울 꾸르실리스따 185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1억 4000여만 원을 모금한 상태이며,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수학하는 해외 신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24) 대회는 필답고사와 노래공연, 골든벨, 파견미사 등으로 이어졌다. 단체전인 필답고사에는 52개 본당 154명이, 개인전인 골든벨에는 51개 본당 150명이 출전했다.

청주교구는 이번 행사를 지난 2008년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아 선정했던 25가지의 ‘암송교리’와 ‘암송성경’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암송교리’, ‘암송성경’과 함께 「가톨릭 교회 교리서」(422~682항 중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했다.

교구장 장봉훈 주교는 미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간절히 청하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자”며 “신앙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거쳐 교구 교리경시대회에 출전했다.<sup>25)</sup>

## 각 교구별 성경잔치

수원교구는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아 10월 5~31일 수원교구청 내 특별전시관에서 성경 필사본, 성경 관련 작품을 중심으로 성경 전시회를 열었으며, 14일(일) 오전 9시 효명중학교에서 유치부부터 어르신까지 참가하는 제19회 성경 잔치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성경경시대회, 가족 성경암송대회, 사생/글짓기대회, 만지락 양초 만들기, 가족 성경가훈 쓰기, 말씀 퀴즈 등의 말씀 체험을 통해 성경에 맛들이고, 친교와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마산교구는 10월 7일(일) 오전 9시, 성지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1회 교구 성경잔치를 벌이고 성경 봉헌식, 성경 경시 대회, 전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광주대교구는 10월 13일(토) 가족 성경 암송 대회를 개최했으며, 안동교구는 14일(일) 오전 8시 30분,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에서 교구 말씀축제를 열었다. 성경 암송대회, 성경 장기자랑, 말씀체험코너, 성경 퀴즈대회, 전시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권혁주 주교 주례 파견미사로 마쳤다.

다음은 한국 평협 상임위원회에서 나누 각 교구 평협과 운동 단체장들의 신앙의 해 보고 내용 요약이다.

먼저 2012년 11월 대구에서 열린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내어놓은 나눔이다.

### <광주 세나투스>

- 전국 세나투스, 교구 레지아 단장 정기총회를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 신앙의 해를 맞아 한국레지오 도입 60주년을 맞은 신앙대회를 5월에 개최하기로 함.
- 전국 세나투스 단장과 교구 레지아 간부 연수 : 4월 18~19일
- 1, 2월 신앙의 해와 레지오 도입 60주년을 맞아 교육 실시
- 5월 레지오 도입 60주년 기념특강 개최 예정

### <서울평협>

- 2월 28일 총회에서 회칙개정으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명칭 변경
- 교구장님과 단체장 만남의 날 : 3월 2~3일, 아론의 집, 40여개 단체 80여명이 참석, 단체, 평협의 위상과 활동에 대한 나눔
- 우눔옴네스의 날 미사 봉헌 : 3월 19일, 우눔옴네스의 기도 봉헌, 우눔옴네스는 2009년 한국 평협이 가입, 2012년 집행위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공의회학교' 개설 : 3월 4일 개설, 160여명 참석,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25) '필답고사'와 '도전 골든벨'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교리서를 통해 배운 신앙의 진리를 공부하고, 함께 모여 공부한 내용을 경합하며 깊이 있게 교리를 맛들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는 "교리경시대회를 통해 신앙의 정체성과 기쁨을 재확인하고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했으리라 믿는다"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하느님께 기도하자"고 전했다.



- 성 목요일 성유축성미사 참석, 금경축, 회경축 사제 감사패 전달
- 위원 연수 : 4월 5~6일, 꾸르실료 회관, 60여명 참석
- 회원단체 지원금 전달사업 : 지원금 신청 14개 단체 16건 사업 중 3개 부문(고유사업, 운영, 새로운복음화)에 걸쳐 13개 단체 14개 단체에 총 5200만원 지원을 결정, 4월 25일 지원금 전달과 친교의 만찬 개최.
- 좋은 영화보기 실시 :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하상방, 교황청, 미국주교회의 추천 좋은 영화를 선정하여 관람과 나눔
- 서울평협 임원 둘레길 걷기 : 매일 둘째 금요일
- 신앙의 해 제주-추차 성지순례 예정: 5월 16~18일 80여명 참여.

#### <제주평협>

- 신임 위원 선출, 임원 임명장 수여식 : 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
- 엠마오 회관 걸림 기공식 : 사제들의 쉼터 마련
- 일본 교토교구 방문 : 3월 20일, 제주교구와 자매결연교구로 방문
- 제주교구 골롬반선교회 사제 4분을 위한 만찬 마련 예정 : 5월 6일
- 제주교구 성모의 밤 : 5월 16일 목요일, 전교구민 참석 예정

#### <춘천평협>

- 시복시성을 위한 전라권 성지순례 : 4월 5~7 62명 참석
- 88차 풍수원 성체대회 개최 5월 예정
- 4월 27일 춘천평협 정기총회 개최 예정

#### <대전평협>

- 대전평협 정기총회 개최.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명칭 변경 : 2013년 12월 1일 개최, 이명수 회장 선임.
- 매일 둘째 월요일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 피정 : 2월 24일
- 대전교구 총회장 및 단체장 연수 : 3월 2~3일, 주제-'청소년을 불러모아라'
- 사목평의회 개최 : 3월 22일, 14개 지구좌 본당의 지구장, 교구사제가 모여 회의
- 평협 임원 엠마오 행사 : 4월 6~7일
- 한생명운동 논산지구 행사 : 4월 27일
- 대전교구 본당들은 청소년, 청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고, 2014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예정이다.

#### <인천평협>

- 인천교구 '교구설정 45주년 기념 영성센터' 완공,

- 특수사목 은경축 사제 3분을 위한 축하행사
- 금경축을 맞는 원로사제 축하식 준비 중 : 6월 7일
- 매월 제물진두 성역화를 위한 성지순례
- 신앙의 해 성체대회(6월 6일), 순교자현양대회(9월) 준비

#### <부산평협>

- 124위 시복시성을 위한 57차 도보순례 : 4월 27일
- 아버지학교 개설 : 4월 350여명 참석, 10월 개설 예정
- 평협 상임위원 피정 : 밀양의 '감물 생태학습관' 5월 11~12일 개최 예정

#### <청주평협>

- 신앙의 해 평신도 교리 경시대회 개최 준비
- 북한돕기 3000원 돕기(하루 100원씩) 전신자 봉헌 준비
- 생명의 밤 행사 준비 : 장기기증, 3자녀 이상 가정 지원
- 최양업 신부와 124위 시복시성을 위한 묵주기도 진행 중

#### <안동평협>

- 1월말 본당 사목위원 연수 : 1월 26~27일, 주제-'신앙의 재발견과 교회 쇄신'
- 전교구민 친교의 날 행사 : 5월 17일 개최 예정, 준비모임
- 지구별 신앙의 해 신앙대회 격려, 지원 : 6개 지구별 개최

#### <광주평협>

- 매월 첫주 월요일 가정성화특강 개최
- 평협 상임위원회 : 3월 9일,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의 세부계획 마련
- 한국여성연합회 상임위원회 지원 : 3월 22~23일
- 교구평협 사무실 이사
- 성 목요일 성유축성미사 때 원로사제 예우 행사 마련
- 최창무 전 교구장 사제수품 금경축 축하식 : 4월 16일
- 윤공희 대주교 주교수품 은경축 준비 중 : 10월 22일

####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 제39회 총회에서 새 임원 선임 : 4월 10~12일 부산교구 은혜의 집
- 생명운동, 환경운동이 주된 사업으로 각 교구 여성연합회에서 펼치고 있다.
- 10월 환경 주제 전국회원 교육 예정
- 1년에 3회 상임위원회를 개최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 '구마 심포지엄' 개최 : 4월 16~17일.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 100여명 참석
- 성령세례를 주제로 성령세미나를 위한 기도회 준비 : 6월 2일 꽃동네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정기총회 개최 : 3월 16일
- 창립자인 프레데릭 오자남 영성 재조명 행사 참석 : 프랑스 4월 18-25일

2013년 4월 26일 마산 상임위원회

<춘천평협>

- 정기총회 개최, 임원 개선, 김춘배 회장 연임
- 11대 임원 친목모임
- 춘천교구 후원자 모임 주관 : 7. 19
- 38선 도보순례 이강재 디모테오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 예정 : 10. 9

<수원평협>

- 5월 25일 새 임원진 선임, 7월 임명장 수여 예정
- 수원교구 50주년 준비 : 10. 3 축하미사와 감사행사

<원주평협>

- 원주, 제천지구 순교자현양대회 : 4.28 / 5.12
- 풍수원 현양대회 개최 : 5. 30
- 8월 중순 지구임원 하계연수 계획 중

<대구평협>

- 교구 성모의 밤 주관 : 5. 5
- 38회 교구장배 테니스대회 : 5. 17
- 교구 올드레야 : 6. 15
- 성지안내를 위한 봉사단체 창립, 36명 봉사자 1, 2기 수료식 : 7. 5
-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동화사 방문, 축하 인사 : 5. 7
- 일본 나가사키 대교구에서 다가미 대주교 등 15명 방문 교류 : 7. 7

<부산평협>

- 경남 밀양 교구 생태학습관 개관 축성식을 갖고 5월 평협 임원 피정 실시
- 시복시성 기원 도보성지순례 매달 마지막 토요일 실시 중.

<청주평협>

- 제14회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 4. 27
- 1850년 이전 형성된 교우촌 이월본당 세월공소 축성식 : 7.3

<마산평협>

- 본당회장 교구단체장 춘계연수 : 3. 17
- 지구별(거제, 창원, 진주) 순교자 묘역 성지순례 개최
- 진주지구 여성협의회 도보순례 : 4.9

<광주평협>

- 남동성당 민주화운동 기념미사 : 5. 18
- 5.18 학술대회 : 5. 22
- 한국종교인평화협의회 한국대회에 광주평협, 여성위원회 참석 : 6. 27
- 쌍용자동차,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평화적 해결을 위한 평화미사 예정 : 7.15
- 제주 강정마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올레길 걷기 참여 예정: 7.29-8.4
- 평협, 여성위 임원 부부피정 계획 중 : 8. 10

2013년 7월 12일 인천 상임위원회

<제주평협>

<대전평협>

- 청주평협과 친선교류 행사 : 6. 1.
- 한생명운동(헌혈·장기기증) 지구별 개최 : 4월 논산지구, 6월 공주지구
- ‘청소년과 함께하는 본당 공동체 건설합시다’ 주제의 교구 행사 준비 중
- 2014 아시아청년대회와 한국청년대회를 위한 준비 중

<마리아사업회>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시각장애인협의회 : ‘하느님의 종’ 시복시성을 위한 묵주기도 315,500단
- 교구별 임원선출로 서울회장이 전국회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 청주교구, 의정부교구 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설립을 위한 준비 중
- 원주협의회 주관으로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 마리아 피정 : 5. 13-14
- 성서, 기도서, 상장예식 등 점자문서화에 관심과 지원 바란다.

<한국가톨릭 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 전국성령대회 준비 중, ‘은사’를 주제로 개최 예정 : 9. 14-15

#### <한국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

- 마산교구에서 2차 상임위원회 개최 : 6.24-25
- 강우일 주교 초청 환경교육 예정 : 10. 7

####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 한국진출 50주년 해를 맞아 50주년 기념책자 발간 예정 중

#### <한국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 신앙실태조사 설문 회수 중
- ‘평신도 연구’ 학술지 제작 예정
- 국회의원 의정 모니터링 사업, 신앙실태 설문조사 진행 중
- 평협 45주년을 맞아 학술지 발간 예정, 각 교구평협과 단체에서도 평신도에 관한 논문을 신고자 한다면 문의해주시기 바란다.

## IV. 평협과 한국교회

### 6월 2일 교황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의장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는 신앙의 해를 맞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인 6월 2일(일) “한 분이신 주님, 하나인 믿음”을 주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으로 오후 5시(한국 시간 밤 12시)부터 1시간 동안 베드로 대성전에서 거행하는 성체 조배 때 각 교구의 주교좌성당과 성당들에서 함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 수원, 부산, 춘천 등 각 교구 주교좌성당에서 ‘교황님과 함께 하는 성체 조배’를 거행했고, 평협 임원들도 각자 본당에서 이날 밤 12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로마시간 오후 5시~6시) 성체조배에 참여해 가톨릭교회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는 했다.

### 11월 24일 ‘신앙의 해’ 폐막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이 자의 교서 「믿음의 문」(Porta Fidei)을 통해 선포하고 2012년 10월 11일 개막한 ‘신앙의 해’가 2013년 11월 24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폐막한다. 각 교구에서는 24일(일) 폐막 미사를 봉헌하며 신앙의 해를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해를 살아왔는지, 그리고 신앙을 위한 우리의 임무를 어떻게 새롭게 했는지 성찰한다.

### 두 가지 제안

신앙의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각 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교구 또는 전국 단위

의 교회운동, 사도직 단체들이 ‘백서’ 형식의 문건을 제작했으면 한다. 이를 한국 평협이 취합해서 자료로 남길 수 있었으면 한다.

둘째는 각 교구 평협과 한국 평협의 운영 실태를 좀 더 깊이 알아보아 평협의 제자리 매김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평협 연구소가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록>

2012년 1월 6일 발표한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신앙의 해 공지문 중 제4장 ‘본당, 공동체, 운동, 단체 차원’ 편을 부록으로 첨부하고자 한다.

### 교황청 신앙교리성

#### 신앙의 해를 위한 사목 권고를 담은 공지

##### IV. 본당, 공동체, 운동, 단체 차원

1. ‘신앙의 해’를 준비하면서 모든 신자들은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믿음의 문」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도록 권유받습니다.
2. ‘신앙의 해’는 “전례, 특히 성찬례를 통한 신앙의 경축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와 새로운 복음화의 원천인 성찬례 안에서 교회의 신앙이 선포되고 기념되고 강화됩니다. 모든 신자들은 주님의 참다운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찬례에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3. 사제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더욱 주의 깊게 연구하여 본당 사목, 곧 교리 교육, 강론, 성사 준비 자료의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제들은 또한 신앙이나 특별한 주제들, 예를 들어 ‘그리스도와 의 만남’, ‘신앙 고백의 근본 내용’, ‘신앙과 교회’에 대한 일련의 강론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교리 교사들은 본당 사제의 지도 아래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풍요로운 교리 지식을 더욱 잘 알아, 신자 단체들이 이 귀중한 문헌을 읽고 숙지하여 작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주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5. 본당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가정을 위한 다른 적절한 자료들을 보급하고 배포하는 노력도 새로이 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참다운 가정 교회이며 신앙이 전수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이러한 신앙 전수는 예를 들어 가정 축복식이나 어린 세례 예식, 견진성사와 혼인성사를 통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는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깊이 알고, “모든 이가 언제나 변함 없는 신앙을 더욱 잘 이해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전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본질적으로 사도직을 위한 소명”임을 인식하면서, 본당과 직장에서 신자들이 세례 때 받은 신앙의 은총과 그 증언의 책무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선교와 다른 프로그램들을 증진하는 것도 적절할 것입니다.
7. 이 신앙의 해 동안,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은 저마다 그들 고유의 은사에 따라, 또한 성부와 올바른 가르침에 충실하여, 주 예수님과 새롭게 일치를 이루어 새로운 복음화에 헌신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8. 신앙의 해에 관상 공동체들은 특히 하느님 백성의 신앙 쇄신과,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9. 교회 단체와 운동들은 그들 고유의 은사에 따라 지역 교회 목자들과 협력하여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기여하도록 초대받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그들은 신자들이 신앙의 해를 더욱 폭넓게 경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들과 교회 운동들은 창의적으로 또 아낌없이 교회에 봉사하면서 신앙을 증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찾게 될 것입니다.
10. 모든 신자들은 신앙의 선물을 되살리라는 부름을 받았으니, 그들 자신의 신앙과 사랑의 경험을 타종교의 형제자매들에게 전하고, 비신자나 신앙에 무관심한 이들과도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여야 할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였음을 의식하고, 더불어 살고 일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선교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 신앙의 해를 사는 평신도 신앙의 모습

-한국 천주교 신자 신앙생활 실태 조사-

2013.11.8.

사회 사도직 연구소  
선한승 연구위원  
(한국사회노동연구원장)

## 목 차

1. 시작하는 글
2. 조사방법 및 표본추출
  - 1) 조사방법
  - 2) 표본추출 및 설문지 조사
  - 3) 응답자 분포
3. 신앙인의 태도에 대한 조사 분석.
  - 1) 신앙인의 신앙생활 실태
  - 2) 신앙 실태 조사 결과의 시사점
4. '신앙의 해'에 대한 실태 조사 분석
  - 1) '신앙의 해'의 실태
  - 2) '신앙의해'의 평가와 과제
5. 신자의 의무와 준수 실태.
  - 1) 신앙인의 자세
  - 2) 신자의 의무 준수를 위하여
6. 일상생활에서의 천주교 신자의 의식 분석.



- 1) 신자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 2)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7. 한국교회의 신앙 위기 분석.**

- 1) 신앙의 위기실태와 원인.
- 2) 신앙 위기 극복의 길

**8. 한국 평협의 활동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 1) 한국 평협의 활동 방향에 관한 의견
- 2) 한국 평협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9. 결론: 참다운 신앙을 위하여**

■ 참고문헌 목록

■ 한국 천주교 신자 신앙생활 실태 조사 설문지

부록I: 빈도 분포

부록II: 히스토그램(histogram)

부록III: 유의도 분석

## 1. 시작하는 글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한국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는 천주교신자<sup>26)</sup>의 신앙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 fideles Laici)은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 교회는 포도나무이며, 평신도는 포도원의 일꾼(마테 20, 6-7)일 뿐만 아니라 포도원의 주요한 일부분이다.”

이러한 언명 속에는 평신도는 교회의 복음화에 헌신하여야 하고 하느님 나라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바오로 2세는 평신도는 현대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뿐만 아니라 교회 및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투신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평신도는 내적으로 갈망하는 자신의 욕구, 인간의 존엄성 회복에 투신해야 하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명을 지닌 존재로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인 존재로 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평신도는 세례받은 사람들로서 구세주 예수와 같은 사명을 부여받고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봉사하는 존재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평신도가 과연 오늘날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적 의미가 있는 본 실태 조사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조사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 천주교 평신도의 신앙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사되는 항목은 미사참례, 고해성사, 기도, 성경읽기 등 네 가지이다.

셋째, 평신도의 가치관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인공수정,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등에 있어서 천주교의 가르침에 대해 어느 정도 순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관련되고 있다.

넷째, 신앙의 위기에 대한 평신도의 관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

\* 본 보고서는 주님의 보살핌과 사회사도직연구소(소장 오용석)의 관심이 아니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으며 조그마한 흠결이라도 오로지 필자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다.

26) 여기에서 천주교신자라 함은 영세를 받은 평신도를 의미하며 냉담자도 포함한다.

다섯째, 한국천주교 평협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방향 정립에 대한 의견을 모색하는 것이다.

끝으로 2007년도 조사와 비교해서 우리 신자들의 의식구조 변화를 추적해보는 것도 본 조사의 의미를 높이는 조사연구가 될 것이다.<sup>27)</sup>

## 2. 조사 방법 및 표본 추출

### 1) 조사 방법

조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이 그것이다. 양적 방법은 천주교신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실태 파악을 한다. 그리고 질적 방법은 양적 조사 방법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자가 방문한 성당<sup>28)</sup>의 신자 및 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다.<sup>29)</sup>

### 2) 표본 추출 및 설문지 조사

본 조사의 설문대상은 유의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본 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본당 주임신부로 부터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진행한다.<sup>30)</sup> 여기에 고려되는 변수로는 연령, 성별, 학력, 직업, 결혼여부, 자녀유무, 세례기간 등이다.<sup>31)</sup> 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본당 신부와 공동체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되었다. 본 설문지는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의 검토회의를 수차례 거치면서 완성되었고 사전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조사기간은 2013년 5월1일부터 9월1일까지이며, 통계처리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유의도 검증은 카이스퀘어( $\chi^2$ 검증) 및 아노바(ANOVA) 방식을 사용하였다.

### 3) 응답자 분포

응답자수는 1384명이며 이중 남성은 500명, 여성은 884명이며, 각각의 비중은 36%와 6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한편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60년대 이전 출생자가 가장 많아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1960년대 출생이 25%이며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속한다고 볼 수

---

27) 다만 2007년도 조사는 전국단위로 이루어졌고 유효한 응답 표본수만 해도 3066명으로 서울과 인천의 1384명의 본 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2007년 조사와의 비교는 신앙생활실태, 신자의 의무, 신자의 가치관등 3개부문만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 설문지를 사용했다.

28) 필자의 생활여건상 여러지역에서 미사를 참례했다. 강원도 횡성, 경기도 안성, 충청북도 청원군, 서울 사당동, 전남 보성 및 여수, 제주도등에서 미사를 참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하였다.

29) 여기에서 말하는 질적 방법은 신자에 대한 개별인터뷰 및 본당별 사례조사를 의미한다.

30) 본 조사는 사회사도직연구소의 사무국이 주관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가장 조심한 부문은 조직별로 범문용례로 답변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신자 스스로 자기 주관에 따라 사실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31) 본 보고서는 일차로 변수는 통계처리에 국한하고 분석은 전체 빈도수 분석만을 시도한다.

있는 1970년대 이후 출생은 21%에 불과하다. 이들의 결혼여부는 기혼이 88%로서 절대다수가 기혼자이며 자녀는 2명이 가장 많아 57%이며 다음으로 3명이 16%, 1명이 9%이며 미혼자 12%와 비슷하게 무자녀가 13%를 차지하고 있다. 한 편 학력수준을 보면 대졸이 47%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졸이 34%, 대학원이상이 9%로서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다.

세레년도를 보면 1980년대가 가장 많아서 26%이며 다음으로 1990년대가 23%, 2000년대 이후가 25%이나 1960년 이전이 6%에 불과하여 비교적 세레이후 신앙생활기간이 나이에 비해 짧다.

이에 따라서 입교 동기면에서 태증교우는 15%에 불과하고 친구, 가족권유가 38%로 가장 많고 자발적으로 입교가 34%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선교활동의 정도를 보여주는 교우의 인도는 9%에 불과하다.

직업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주부가 가장 많아서 절반에 육박하는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이 11%, 전문직이 9% 순이며 이외는 직업이 매우 다양하다.

### 3. 신앙인의 태도에 대한 조사 분석.

#### 1) 신앙인의 신앙생활 실태

신앙인의 믿음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잘 드러난다.<sup>32)</sup> 일상생활사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은 일상생활을 연구하면서 그 사람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규명한다. 신앙인의 일상생활의 모습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사참례, 기도, 고해성사, 성경읽기 등으로 드러난다.

신앙인이 어느 정도 신실한 믿음을 갖는가에 대한 측정변수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미사를 어느 정도 참례하고 있는가? 미사참례는 천주교신앙인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이다. 미사를 참례하지 않는다면 천주교 신자라고 할 수 없다.

본 조사에 의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이 전체 응답자 중에 4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매일 미사 참례가 36%이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82%가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미사에 참례한다고 응답하여 미사참례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매우 신앙심이 높은 신자로 조사되어 일반 신자의 가치관과 의식구조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3)</sup> 이는 2007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아도 드러난다. 2007년도 조사에서는 매일 미사참례는 10%에 불과하다.

---

32) 사회사연구는 일상 생활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볼 것임. 줄고, 사회합의주의 연구, 한국노동연구원,1992

33) 이러한 표본으로는 본 조사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서 필자가 질적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보충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위기는 미사참례 빈도에서 나타난다. 상당수의 신자들이 주일미사도 거르는 사례가 많다. 본당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보통 전체 교적부의 총신자중 30%정도만의 주일미사 참례율을 보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sup>34)</sup>

둘째, 고해성사 횡수를 통해서 신앙심을 측정한다. 고해성사는 미사에서 영성체를 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하느님을 받아드리는 엄숙하고 성스런 행위이다. 죄를 짓고 거리낌 없이 영성체를 받아 모신다면 하느님을 영접하는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본 조사의 고해성사빈도를 보면 미사참례빈도와 같이 매우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실태 조사 결과 1년에 4, 5번이 가장 높아 44%이며, 한달에 한번이상도 41%에 달해서 놀라운 정도로 고해성사의 횡수가 많다.<sup>35)</sup> 고해성사는 천주교만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신앙생활로서 자기성찰의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일반신자는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성탄과 부활판공성사만이라도 고해성사를 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하지 않는 신자가 대부분이어서 냉담기간이 장기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기도 횡수를 가지고도 신앙심을 측정하기도 한다.

기도는 신앙의 출발이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란 불가능한 것이다. 기도의 양과 횡수가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횡수가 중요한 것은 요즈음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여 기도를 소홀히 하고 간과하는 신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본 조사결과 특이한 것은 미사와 고해성사는 응답자대부분이 높은 참례율을 보이고 있으나 기도 횡수는 그렇지 못해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도란 매일 하느님과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수 있는데도 우리 신자들이 기도를 매우 특별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태 조사에 의하면 매일한다는 응답자는 21%에 불과하고 일주일에 한번이상이 가장 많아서 61%로 나타났다.<sup>36)</sup> 2007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매일기도는 53%로 응답하고 있으나 본 조사는 21%에 불과하다.

넷째, 성경읽기 빈도수도 매우 중요하다. 성경읽기는 신앙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는 기반을 형성한다. 말씀으로 전래는 신앙의 충실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매일 성경을 한 줄이라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신앙의 심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성경읽기를 보면 역시 기도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보이고 있다. 하느님을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내면화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의하면 가끔 생각날 때 읽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39%비중을 보였으며

---

34) 필자가 속해있는 사당동 본당도 30%선이고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성당도 교적부기준 950명신자중 300명 정도 평균적으로 미사에 참례하고 있다.

35) 2007년도 조사에서도 1달에 1번이상이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본조사는 41%로 높은 응답율을 보인 것은 일반적인 실태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36)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미사와 고해성사는 반드시 성당에 가서야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이고 기도와 성경읽기는 장소불문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나야 맞다고 본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필자의 판단과는 다르게 나타나서 특기할만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주일에 2,3회가 26%, 매일은 불과 19%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도 조사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7년 조사는 매일 읽는다가 13% 응답율을 보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19%, 전혀 읽지 않는다는 17%와 15%로 차이는 미세하다.

## 2) 신앙 실태의 시사점

신자의 신앙실태 조사에 나타는 결과를 보면 비교적 신앙심이 투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응답자가 신앙의식이 투철한 표본이 선정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전체신자의 평균의식으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본 조사는 네 가지 부문에 대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미사와 고해성사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경읽기와 기도는 상대적으로 참여도가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교회는 기도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한다면 성경읽기에 부담스러운 의식이 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기도 및 성경읽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 지도해야 할 것이다. 틈만 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이며 하루에 한 줄이라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4. '신앙의 해'에 대한 실태 조사 분석

### 1) '신앙의 해'의 실태

교황님께서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이 되는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를 신앙의 해로 선포하셨다.

염수정 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신앙의 해 선포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 교황님께서 신앙의 해를 선포하신 것은 세계교회가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지역 교회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sup>37)</sup> 이러한 활동의 근본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목적에 관해서 염주교는 다섯 가지 표어로 요약했다.

1. 말씀으로 시작하는 신앙( 로마 10,17)
2.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마르 9,29; 사도 1, 14)
3. 교회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사도 2,42; 콜로 2,7)

---

37)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임: 신앙의 안내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여기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신앙의 해' 제정 자의 교서와 염수정대주교의 '신앙의 해' 사목교서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모든 천주교 신앙인이 함께 하는 지침서로 볼 수 있다.

4. 미사로 하나되는 신앙( 사도2,42;1코린 10,17)
5.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사도 2,46; 갈라 5,6; 1코린 13,13)

이는 각 본당이 신앙의 해를 실천하는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신앙의 해에 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는 본당과 신자사이에 편차가 커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신앙의 해가 선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중 23%에 불과하다. 이는 전기한 신앙생활의 충실도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나마 어렵듯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8%로서 전체 응답자중 71%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에 모른다는 응답은 약 30%로서 거의 3명중에 1명은 모르고 있다는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률은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정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신앙의 해’가 선포된 사실을 알고 있는 신자를 대상으로 신앙의 해가 어떤 연유로 선포되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과 「가톨릭교회 교리서」 반포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응답하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갈수록 냉담자가 많아지고 신자수가 감소하는 교회의 위기를 지적하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세 번째로 신자들이 성경과 교리를 소홀히 한 부문과 세상의 윤리 도덕이 타락하고 있음도 ‘신앙의 해’를 선포하는 중요한 이유로 보았다.

본 조사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 각 교구나 본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부프로그램을 참가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려면 우선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신앙의 해에 즈음한 교구나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부 프로그램에 참가 여부를 보면 33%만이 참가했고 나머지 67%는 무응답까지 포함하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효과분석을 시도했다.<sup>38)</sup>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성을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보아 기대만큼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보았듯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

38) 본 조사 설문지는 프로그램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효과부문에 대해 응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가한 응답자수가 463명이나 효과부문 응답자가 566명으로 집계되어 103명이 오류이나 이를 무시하기로 하였다.

‘신앙의 해’에 즈음해서 실시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매우 유익했다는 응답은 26%이고 그저 유익했다는 응답은 50%로서 전체 참여자의 76%는 유익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76%라는 유익성 평가는 높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앞서 매우 높은 신앙심을 나타내는 신자라는 표본의 특수성과 더불어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반면에 소극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24%로 나타났다.<sup>39)</sup>

다음으로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특별히 역점을 두는 부문은 성경읽기, 기도, 교회 가르침 준수, 미사참여, 각종성사 참여, 사랑과 봉사를 통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 등이다. 이러한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어느 정도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효과성 측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이전보다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귀담아 들으며, 필사하거나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문은 36%가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38%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도 19%나 되었다.<sup>40)</sup>

아침과 저녁기도를 통해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과 함께하고, 삼종기도와 식사기도를 빠짐없이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문은 앞서 성경에 대한 태도와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응답 결과만을 놓고 보면 신앙의 해 설정 자체가 신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sup>41)</sup>

더욱이 신앙의 해를 계기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교회교리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부문은 가장 저조한 평가로 나타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매우 그렇다 9%, 그렇다 9%로 전체 18%만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교회교리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응답자의 63%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교회교리서’를 공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교구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교회교리서’는 신자로서 반드시 알아두고 내면화해야 할 신앙지침서이기에 더욱 내용을 숙지하도록 전교구와 본당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미사참례와 영성체를 자주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보다 적극적인 본당 소공동체나 단체 활동을 통해 일치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문도 별반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열심히 선교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봉사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 사랑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39) 그러나 전체응답자 1384명을 기준으로 볼때에는 다른 평가를 도출할 수 있다. 즉, 31%만이 유익했다고 평가하여 10명중에 3명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무응답이 7%나 되는 것은 신앙의해가 설정된 자체를 모르는 응답자를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로 판단된다.

41) 필자가 직접 체험한바로도 확인이 되었다. 미사중에 신앙의 해를 직접 언급하는 사례를 접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각 공동체도 이를 염두해두고 활동하는 사례가 발견되기 어려웠다.



총체적으로 이번 ‘신앙의 해’ 설정은 앞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반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비중이 38%, 보통이다 41%,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15%로 나타나서 긍정적인 평가가 다소 높다.<sup>42)</sup>

‘신앙의 해’가 저물어가지만 우리 신자들이 바라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형식적 행사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할 것을 가장 바라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소공동체 중심의 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기되었다. 세 번째로 성경과 교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바라고 있으며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도 주문했다. 이러한 신자들의 바람은 신앙의 해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2) ‘신앙의 해’의 평가와 과제

‘신앙의해’를 설정한 이유는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신앙의 해 제정자의 교서에 잘 나타나있다. “우리는 소금이 제 맛을 잃거나 등불이 감추어지는 일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태 5, 13-16)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교황님의 가르침 속에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소금이 맛을 잃고 등불이 감추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는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신앙교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쌓고 신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신앙을 정확하고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은 결코 사적인 행위가 아니고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활동이 펼쳐지고 있으나 평신자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형해화(形骸化)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국에 있는 본당이 신앙의 해를 특별히 기억하고 특별한 활동을 통해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신앙의 해는 올해만 있는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고 이후에도 서울대교구가 제시하는 5가지 표어를 일상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실시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행사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에게 따끔한 질책으로 다가온다. 더구나 각 교구 및 본당마다 신앙의 해에 대한 온도 차이가 너무 커서 ‘신앙의 해’에 대한 신자의 관심이 감지될 수 없을 정도임을 보면 작금의 ‘신앙의 위기’와 맞물려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 5. 신자의 의무와 준수 실태.

42) 이는 응답자의 신앙생활실태 조사에서 매우 신앙심이 양호한 신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신자에게는 이보다 훨씬 미흡한 평가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1) 신앙인의 자세

신자는 평신도를 의미한다. 평신도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의미는 성경에 기반하고 있다.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마태 20, 3-4)

한편 그레고리오 성인은 다음과 같이 강론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태도를 살펴보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며 또 내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숙고하여야 합니다.”(성 대 그레고리오, 복음 강론, 1. XIX, 2: PL, 76, 1155.)

오늘날 우리 신자의 믿음은 매우 허약하다고 한다. 신앙의 허약성은 신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에 본 조사는 신앙심의 척도를 나타내는 징표로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내렸다. 이는 너무나 신앙심을 피상적으로 보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즉, 이러한 척도가 보여주는 편견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은 달리 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자세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척도는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교무금, 주일헌금, 선교의 의무, 구역반과 공동체 활동, 십계명 준수가 대표적이다.

교무금에 관한 신자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교무금은 교회의 재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교무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신자의 현 상황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본 조사 응답자의 절대 다수는 교무금이 적당하다 47%(2007년 조사 46%), 오히려 부족하다 41%로서 전체 응답자중 88%가 교무금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식은 주일헌금에 대한 생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96%라는 압도적인 비중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을 보여 교무금보다도 오히려 더욱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sup>43)</sup> 반면에 선교의 의무 및 소공동체 참여의 의무는 다소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교회의 합치도가 높은 응답률만 비교하면 교무금과 헌금에서는 47%, 56%로 나타났으나 선교는 39%, 소공동체 참여는 38%로 월등히 낮다.<sup>44)</sup> 이는 신자 중에서 돈에 대해서는 높은 이해도를 보이고 있으나 하느님 나라 건설에 보다

43) 교무금과 주일헌금에 대한 2007년 조사와 비교는 절묘하게도 비슷하게 의무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놀랍다. 이는 우연의 일치라기 보다는 우리신자들의 생각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변화가 없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44) 그러나 2007년도 조사와 비교해보면 선교와 소공동체 참여도 부문에서 다소 양호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사에서는 선교의 의무 21%, 구역반이나 소공동체 활동 참여는 36%의 응답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는 39%와 38%이다.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할 선교와 공동체 활동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감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십계명 준수에 대한 판단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 89%가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 2) 신자의 영성 의무 준수를 위하여

신자라면 모름지기 신자로서 영성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러한 당연한 영성 의무가 경시되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세태이다. 본 조사는 신자의 의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본 조사 표본이 천주교신자의 보편적인 성향을 대변하고 있는가는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를 논외로 하고 하나의 경향성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결과를 보면 매우 양호하게 신자의 영성 의무를 자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 다수가 교무금 및 주일 헌금에 대해서 참신자로서 건전한 신앙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보다는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선교 및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도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있고 십계명도 잘 지키고 있다. 이를 10년 전 조사와 비교해보아도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는 신자로서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추세라고 보인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의 일반 평신도가 내면화되어 있는 보편적인 인식과 이번 조사결과와는 간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교무금과 주일헌금을 보면 신자의 중산층화로 교회의 재정은 과거보다도 나아졌다고 하여도 많은 신자 중에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추세적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중산층화가 되지 않은 고령화의 시골 농촌교회의 경우에는 재정 빈곤이 심화되어 지역과 본당간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선교의 의무에 대해서도 우리 신자의 수가 급증하여 선교의 의무를 실천하는 신자가 많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신자의 선교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는 신자수는 선교활동에 기인한다고 보기보다는 천주교가 다른 기독교보다도 신자에게 호감의 정도가 높아서 신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따라서 우리 신자의 선교의 의무에 있어서 질적 향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

공동체 생활 참가면에서는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공동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천명한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친교공동체를 목적으로 하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운동이 교회 중산층화와 맞물려서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0계명 준수도 잘 지켜지고는 있다 하지만 10계명의 해석도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상숭배도 주술적인 면보다는 돈, 권력, 명예에 대한 우상화가 보다 더 심각한 종교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구역반과 소공동체 참여 부문은 참여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에 참여하는 사람도 능동적으로 열성적으로 참여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신자의 중산층화로 재정이 원활하지 못한 하층신자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른바 부유한 사람이 구역활동과 공동체 활동의 주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경계해야 한다.

십계명 준수는 평소 신자의 생활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문이다. 이는 신자의 신앙에 대한 몰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평소 이점을 중점적으로 계몽하고 교육시키는 부문이 필요하다.

신자의 의무와는 다른 측면이기는 하지만 성직자의 세금 부과 문제를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응답 결과는 전체응답자의 과반수인 56%가 성직자도 국민의 남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6. 일상생활에서의 천주교 신자의 의식 성향 분석.

### 1) 신자의 의식 및 가치관 분석

인간의 의식 성향 분석은 가치관에서 잘 드러난다.<sup>45)</sup> 신자의 의식과 가치관은 종교적 신념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천주교신자라면 천주교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는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본 설문은 천주교가 지향하는 가치와 신자의 가치가 어느 정도 합일점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가치는 낙태, 인공수정 및 시험관아기, 안락사 그리고 사형제도의 네 가지이다.

우선 낙태는 태아도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하느님이 주신 독립된 객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신자의 가치를 물어보는 것이 목적이다.

---

45) 필자는 노동자의 가치관을 의식성향분석을 통해서 규명하는 시도를 해왔다. 예컨대 노동자의 의식성향은 노동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볼 것: 졸고, 한국노동자의 의식성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994.

조사 결과에 의하면 낙태는 살인행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아 3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강간, 근친상간의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2%이며, 부부간에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1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는 전체 62%의 응답자가 정통 천주교 교리와 다른 생각을 보이고 있다. 이를 200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07년 조사에서 낙태는 살인행위라는 의견이 56%로서 본 조사의 38% 보다 월등히 높았다. 따라서 6년 전에 비해서 천주교교리와 이탈하는 신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에 대한 부문은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로서 인위적으로 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기 등 어떠한 행위도 엄격하게 단죄하는 것이다. 황우석의 배아줄기세포가 인간의 불치병을 치유하는 데 유효하다는 이유로 신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일어났던 부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신자의 의식에 일정부분 변화가 발생했다.

조사에 의하면 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기에 대해서는 부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절반 이상인 53%로 나타났으며, 교회의 금지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22%, 불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13%로 각각 나타나서 교회정책과 반하는 의견을 가진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7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교회정책과 상반되게 당해부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22%에서 53%로 급증하여 과거보다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아졌다.

셋째 안락사에 관해서는 국가 생명윤리위원회가 본인의 동의 및 가족 등 제3자의 의견에 따라서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중단하여 생명을 끊을 수 있다는 법 개정이 확정되어 우리 신자의 의견이 어떻게 나타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따라서 본 설문은 이러한 정치권과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천주교의 정책은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방침으로, 이에 동조하는 응답자는 불과 17%에 불과하고 절대다수의 83%는 교회의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2007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교회의 정책에 의거한 당연히 금지 응답은 31%에서 17%로 급감하였다. 반면에 교회의 정책과 상반되는 응답, 즉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안락사 허용은 44%에서 53%로 높아져서 현 교회정책과 상반된 의견의 비중이 높아졌다.

끝으로 사형제도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치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천주교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우리 신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관심이 많다.

우리 천주교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바, 이에 동조하는 응답자는 33%에 불과하다. 나머지 67% 응답자 중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부문은 흉악범

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부문으로 35%이며 흉악범이 근절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존치는 22%이다. 천주교정책과 반대되는 의견이 많은 것은 흉악범이 날로 급증하는 세태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천주교 교리를 생활화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천주교 신자라는 의식이 어느 정도 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위에서 응답한 내용을 보면 객관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즉, 평소 천주교 신자라는 의식이 강하면 천주교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부합되게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반되게 나타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천주교 신자라는 의식을 내면화하면서 생활한다는 응답이 88%나 되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톨릭 교회에서 지향하는 정책에는 상당한 괴리가 나타나서 이 부문에 대한 교회의 대책이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사형제도, 낙태, 인공수정, 안락사 등 교회의 정책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를 줄 것인지 아니면 신자에게 확고한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2)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천주교 신자라면 신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기도 하고 가치관과 의식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천주교의 가르침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규범이다. 따라서 마땅히 신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며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로 개인적 신념은 절대자유라는 의식 속에서 천주교의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례가 없지 않다. 따라서 천주교는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왔다.

따라서 신자들은 교황님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부문에서는 신자들이 이탈하는 경우를 목도한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분명한 주류는 형성되어 있지만 일부항목에서는 신자사이에서도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낙태, 안락사, 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기, 사형제도등 네 가지 생명 중시 관련 사항 중에서 안락사 부문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최근 논의에서 보듯이 가족의 동의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제도가 확정되었다. 사형제도에서도 사형찬성론이 국가의 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부문이 신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여기에다 불임부부에게 아이를 잉태하는 기쁨을 허락하는 문제 또한 간단치 않다. 따라서 교황님을 비롯한 교회지도자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부여해주고 있다 하겠다. 낙태 또한 원치 않는 아이를 가졌을 때, 이를 천주교 가르침을 따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sup>46)</sup>

특히 2007년 조사와 비교해보아도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탈하는 응답이 6년 전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아진 실태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교회의 정책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지에 대한 과제를 부여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 7. 한국교회의 신앙 위기 분석.

### 1) 신앙의 위기 실태와 원인

오늘날 교회는 신앙의 위기를 걱정해야 한다. 냉담자가 늘어나고 젊은 층의 교회기피, 의례적 신자 등이 날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신자의 중산층화로 인한 보수화,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이 낳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염수정 대주교도 우리 신앙인의 허약한 자세를 지적하고 오늘날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서 '식어버린 신앙'으로 규정하고 있다.<sup>47)</sup> 이러한 신앙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위기를 초래하는 본질을 이해해야 하고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

신앙의 위기는 신자와 교회의 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자의 신앙위기는 신자자신의 문제에서 비롯되며, 교회의 위기는 성직자 및 교회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다.<sup>48)</sup> 본 조사는 신자와 교회 위기 모두를 아우르며 신앙의 위기를 분석한다. 이유는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 교회는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하고, 교황님이 신앙의 해를 선포할 만큼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 교회도 이러한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를 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본 조사에 의하면 신앙의 위기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68%( 매우 공감 28%, 조금 공감 40%)나 차지하여 위기를 체감하는 신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현재 한국교회가 신앙위기에 당면하고 있다면 그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본 설문은 중요도 순으로 세 가지만 골라 1 2 3을 기입하도록 했는데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항목은 물질만능주의 풍조를 꼽았고 전체점수를 100점으로 계산하면 30.7점을 얻고 있다.<sup>49)</sup> 다음으로 개인적 이기주의는 28.7점, 영성적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한 교회 9.7점, 일부 종교인들의 위선과 비리 7.7점 순이다. 이는 1순위와 동일하나 반면에 2순위를 보면 개인적 이기주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물질만능주의, 영성적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한 교회, 일부 종교인들의 위선과 비리 순이다.

46)성폭행으로 잉태된 아이를 출산한 나이 어린 생모가 아이를 결국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에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느냐는 과제가 부여되고 있다.

47) 염수정, '신앙의 해'사목교서, 신앙의 해 안내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17쪽.

48) 토머스 키팅, 신앙의 위기( 김수창역), 가톨릭 출판사, 1987.

49) 본 설문은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3순위는 1점으로 점수화했다.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징표로서 응답자중 가장 중요한 위기는 ‘늘어나는 쉬는 신자’를 꼽아서 그 점수가 36.2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젊은 층 신자의 감소에 따른 성직자·수도자 지원 감소로서 26.4점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주일미사 참례자수의 감소 17.6점, 신자의 고령화 15.6점 순이다.

한편 2순위 응답자를 보면, 주일 미사 참례자 수의 감소, 청소년과 젊은 층 신자의 감소에 따른 성직자·수도자 지원 감소, 늘어나는 쉬는 신자, 신자의 고령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위기의 징표를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교회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여도 교회 및 신자가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보면 신자들은 무신론 과학의 발달과 문화적 세속주의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 개인주의문제, 물질만능주의 영성적 갈등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교회문제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위기의 원인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나서 특기할만하다. 위기의 원인에서는 물질만능주의 풍조를 꼽았는데 반해서 해소방안에서는 신자의 무신론이 1순위이고 물질만능주의가 2순위로 밀려났다.

## 2) 신앙 위기 극복의 길

신앙의 위기는 언제나 있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정했다.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위기에 언제나 노출된다.

본 글에서 다루는 위기는 교회가 처한 위기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교회의 위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된다. 냉담자가 많아지고 쉬는 신자가 증가하고 신자의 고령화로 젊은 층의 신자가 교회를 외면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징후가 표출된다.

조사에 의하면 교황님, 교회 지도자와 함께 평신자도 그러한 신앙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자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원인을 알면 처방도 나온다. 교회 위기의 원인은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구조적인 요인과 신자 개개인의 요인으로 나누어 해법을 모색하기로 한다.

우선 구조적인 원인은 교회 자체내의 문제다. 교회가 관료제화되어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신앙인을 찾아가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천주교의 관료제화는 개신교에 비해서 특성상 심화될 수 있다. 교황님을 정점으로 수직적인 구조는 관료제화에 노출될 수 있다. 반면에 개신교는 교회의 사유화 및 개인화가 또 다른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관료제화는 보수화를 야기하고 변화에 둔감하고 교회지도



자들이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역동성을 보여주는 데에 주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신흥종교의 허무맹랑한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신자의 숫자가 날로 늘어나는 데는 평신도의 신앙심의 부족에만 돌리기 어려운 요인도 내재해 있다.

다음으로 신자의 개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물질숭배라는 우상에 빠져서 신앙을 도외시하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평신도의 공동체 활동에서도 물질이 지배하는 문제를 드러냈다.<sup>50)</sup> 권력과 명예를 숭상하는 풍조는 하느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반된 것으로 신앙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다.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신앙을 외면하고 지금 이 순간의 안락과 명예를 추구하는 신앙인은 스스로 신앙의 위기를 불러 오는 것이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어떠한 유혹에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세태가 교회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를 불러 온 것이다. 조선제국의 착박한 땅에서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리고 순교의 길을 주저 없이 선택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순교성인들의 정신이 오늘과 같은 신앙의 위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절실해지고 있다.

## 8. 한국 평협의 활동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 1) 한국 평협의 활동 방향에 관한 의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평신도가 초기 교회를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평신도의 교회에서 역할은 흔히 세 가지로 집약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이는 평신도 사도직에 대해 언급한 시노드 문헌에 잘 나타나있다.

평협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복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조직체이다. 평신도는 세속 속에 살고 있어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예언자적 사명을 갖고 직접 참여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평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더구나 교황님이 신앙의 해를 설정해야 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와 신자의 신앙의 위기가 갈수록 점고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한국 평협이 짙어지고 가야할 시대적 소명이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우리 신자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평신자들의 의식은 매우 혼돈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평신자 사이에 분열된 모습은 교황님을 비롯한 성직자에게 매우 위험스런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sup>51)</sup>

50) 필자가 참여한 구역반장으로서 경험은 일선조직이 물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51)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의 정치상황에서 보여준 평신자간 보수와 진보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외부

이러한 관점에서 평협이 지향해야 하는 바람직한 활동 방향을 본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활동영역은 정치사회의 다양한 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평협이 해야 할 부문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부문은 가정, 사회 문화 복음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높은 점수를 득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 선도 및 도덕성 회복이며 세 번째로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자, 저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이고 그 다음으로 평신도 지도자 양성과 평신도 교육활동,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 순이다.

## 2) 한국 평협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평협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지는 평신도의 사명과 결부되어 있다. 평신도 사도직에 대하여서는 시노드 문헌을 살펴보아야 한다.<sup>52)</sup>

평신도는 차별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느님나라 건설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는 동등하다. 평신도의 사명은 사제요, 예언자요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삼중 사명에 참여한다.<sup>53)</sup> 따라서 평신도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현세의 일을 하고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

평협의 임무와 역할이 막중함은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확인된 바 있다. 교황님은 평협에게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데도 나약한 우리 평신도가 이를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하느님의 백성 평신도는 하느님의 교회 포도원에서 맡은바 모든 소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 평협은 평신도들이 만든 단체로서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노드의 정신에 의거 ‘함께하는’ 평협이 출범하게 되었다. 평협이 무엇을 하는지는 회칙을 보면 잘 알 수 있다.<sup>54)</sup> 여기에서 가정과 사회의 복음화라는 목적 하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 명기되어 있다.<sup>55)</sup>

이에 의거 평협은 사회 각 부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하는데 본 조사는 평신도들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 중에서 특징적인

---

에서 보는 천주교에 대한 시각과 더불어 우리 신자사이에서 걱정하는 소리가 매우 높다는 현실은 결과 간단히 넘겨버릴 수 없다고 하겠다.

52) 시노드란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체를 의미하며 라틴어의 어원은 시노두스(synodus)이다. 이말은 ‘함께’, ‘동시에’를 의미하는 단어 syn과 ‘길’, ‘여정’을 뜻하는 hodos가 합쳐서 이루어 졌다. 따라서 ‘함께하는 여정’으로 표기되는 시노드는 평협이 나아갈 길을 표현하고 있다 할 것이다.

53) 평신도 그리스도인 14항

54) 서울평협이 만든 평협회칙에 보면 목적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다. “ 이회는 교회와 한국순교자의 정신과 교구장의 사목방침에 따르며 복음적 생활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평신도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인 가정과 사회의 복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5) 평협이 전개하는 사업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문은 “ 정치,경제, 사회, 문화등 각 분야에 걸쳐 복음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부문은 사회봉사, 사회적 약자, 청소년 문제등 다양한 부문에 평협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평신도들의 공동체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여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극심한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sup>56)</sup> 그러나 본 조사에서 응답자는 매우 건전한 방향제시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9. 결론: 참다운 신앙인을 위하여

우리는 ‘신앙의 위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에 올해를 신앙의 해로 설정하고 신앙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천주교는 모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느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영면하시고 자애로운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보내 주셨다. 교황님은 지금 산적한 교회와 신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주실 것으로 모든 천주교 신자들은 굳게 믿고 있다.

본 조사도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그마한 지혜를 찾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실시되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신자들이 조사에 참여하여 훌륭한 지혜를 밝혀 주어서 감사한 마음이다.

본 조사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표본의 규모가 작고 수도권에 제한되어 한국 천주교 신자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다. 그리고 본 조사에 참여한 신자들이 매우 높은 신앙심을 보인 부문도 평균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표본의 한계에서 나타난 부문은 필자가 여러 본당을 다니면서 대화를 나누었고 필자의 신앙생활의 경험도 많이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보면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sup>57)</sup>

첫째, 신앙인의 신앙생활 실태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기도와 성경 읽기를 미사참여와 고해성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이 특기할만하다. 이는 아마도 혼자 하는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도하는 방법을 따로 연마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성경 읽기는 필사를 적극 권장하고 성경 읽기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앙의 해’를 설정하여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좋은 성과를 내는 부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기대한 만큼 신자 속에 파고 들어가서 신앙의 태도를 바꾸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각 교구 및 본당이 풀어야할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신앙의 위기는 신자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앙의 해가 끝나는 이후에도 교구 차원에서 신앙의 해를 설정한 취지를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의 해’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살려갈 것인지를 논의하

56) 최근에 일부 평신도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의주장을 여과없이 내보내서 천주교의 정체성에 혼돈을 야기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서 우리 평신도의 결집된 힘을 모으는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57) 본 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시사점을 다섯가지로 집약하는 것은 우리가 따를 수 있으나, 전체 보고서를 관통하는 결집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또한 필요한 작업이다.

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앙의 해는 일회적이어서는 안 되며 더욱 계승 발전시키는 데에 교계 지도자 및 한국 평협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 신자의 의무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우선 재정 및 물질과 관련해서는 매우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체 활동 참가와 선교활동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는 신자의 중산층화가 낳는 결과로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신자의 생활 편이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양호해지고 있어 물질로 신앙생활을 하면 충분하다는 의식으로 발전된다면 이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공동체 건설과 선교활동의 비중을 높게 보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교회의 정책을 순응하는 문제가 초미의 과제로 등장한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교회의 정책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어느 정도 변화를 줄 것인지 아니면 정통 교리를 계속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이다.<sup>58)</sup> 그러나 우리 신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세속적으로 변화가 몰려와도 천주교의 교리에 충실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장은 세상의 변화 물결을 예의주시하면서 교리의 가르침을 지키는 교회 및 공동체의 노력이 더욱 배가되어야 한다.<sup>59)</sup>

다섯째,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신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측면에서는 성직자 등 교회지도자들이 위기의 본질을 직시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관료제화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혁신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신자는 무신론, 물질숭배 등 잘못된 가치관을 불식시키기 위한 자정노력이 중요하다. 참다운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신자 자신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끝으로 한국 평협이 나가야 할 방향은 신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평협은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선교와 봉사를 위한 전위대로서 힘을 결집해야 한다. 한국 평협은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서 모든 신자를 하나로 뭉치도록 하여 삼중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58) 비록 표본집단이 달라서 비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하여도 2007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교회정책과 반하는 응답이 뚜렷하게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59) 지금 전국 본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태는 세상의 물결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참고 문헌

김수환, 추기경의 신앙과 사랑, 가톨릭출판사, 2009  
한국 평협 40주년 백서,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1  
평신도 그리스도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비전회의 자료집,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04  
신앙의 해 안내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 사도직,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2. 10.11.  
서울평협위원 연수,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3.

## 한국 천주교 신자 신앙생활 실태 조사 설문지(2013년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신앙의 해'입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한국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는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신자들의 신앙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보다 깊은 신앙인으로서 자세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주신 결과는 11월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와 한국 평협이 공동 주최하는 '신앙의 해' 결산 심포지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향후 한국 평협 활동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귀찮으시겠지만 부디 이 조사의 목적을 깊이 헤아리시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사결과는 통계자료로만 쓰이므로 개인적인 어떤 내용도 드러날 우려가 전혀 없으니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

사회사도직연구소 드림



본 조사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02)777-2013

E-mail: clak@catholic.or.kr

담당자: 유영훈 사무국장

I. 다음은 응답자의 특성분석을 위한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체크(✓)하시거나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성별과 출생년도

1-1 성별: 남( ), 여( )

1-2 출생년도: \_\_\_\_\_년

1-3 결혼여부: 미혼( ), 기혼( ) ☞ 자녀수( )명

2. 학력 수준

① 초등학교 이하(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 대학교( )

⑤ 대학원 이상( )

⑥ 기타( )

3. 거주 지역과 본당

2-1 거주 지역:                   시(군)                   동(면)

2-2 본당 이름:                   성당

4. 직업:

① 경영관리사무직( )

② 공무원( )

③ 기술직( )

④ 자영업( )

⑤ 전문직( )

⑥ 서비스 판매 영업직( )

⑦ 농업 임업 수산업( )

⑧ 생산 단순 노무직( )

⑨ 주부( )

⑩ 학생( )

⑪ 기타(무엇: )

5. 세례년도 및 천주교 입교 동기

5-1 세례년도: \_\_\_\_\_년

5-2 천주교 입교 동기

① 자발적으로( )

② 친구, 가족 등 타인의 권유로( )

③ 교우의 인도로( )

④ 태종교우(모태신앙)( )

⑤ 기타(무엇: )

II. 다음은 평소 신앙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미사참여 횟수

① 매일( )

② 1주일에 2-3번( )

③ 일주일에 한번 주일미사( )

④ 어찌다 생각나면 한두 번 ( )

⑤ 성탄절, 부활절 등 특별한 때만( )

2. 고해성사 횟수

① 한 달에 한번 이상( )

② 1년에 4-5번( )

③ 성탄과 부활 판공성사 때만( )

④ 어찌다 생각나면 한두 번( )

⑤ 거의 없다.( )

3. 기도 횟수

① 매일( )

② 일주일에 한번 이상( )

③ 어찌다 생각나면 한두 번( )

④ 하지 못한다.( )

⑤ 기타(무엇: )

4. 성경읽기

① 매일 읽는다.( )

- ② 일주일에 2-3회 읽는다.( )
- ③ 가끔 생각날 때 읽는다.( )
- ④ 전혀 읽지 않는다.( )

III. 다음은 ‘신앙의 해’에 관한 문항입니다.

교황 베네딕도 16세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이 되는 2012년 10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를 ‘신앙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1. ‘신앙의 해’가 왜 선포되었는지에 관해 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 ② 어렵듯이 알고 있다.( )
- ③ 잘 모른다.( )
- ④ 전혀 모른다.( )

1-1 (①과 ②응답자만) ‘신앙의 해’ 선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회와 성직자가 제 사명을 잘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 ② 갈수록 냉담자 증가로 신자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 ③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타락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
- ④ 세속주의, 상대주의와 함께 무신론이 만연해진 때문이다.( )
- ⑤ 신자들이 성경과 교리를 소홀히 하는 풍조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 )
- 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과 「가톨릭교회교리서」 반포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
- ⑦ 기타.(무엇: )

2. 교구나 본당에서 하고 있는 ‘신앙의 해’ 전례나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참여한 적이 있다.( )  2-1로 가시오.
- ② 참여한 적이 없다.( )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만 응답)

2-1 참여한 전례나 프로그램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2-2. 참여하신 ‘신앙의 해’ 전례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유익했다.( )
- ② 유익했다.( )
- ③ 평범했다.( )
- ④ 유익하지 않았다.( )



⑤ 전혀 유익하지 않았다.( )

3. 다음은 '신앙의 해'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성경, 기도, 교회 가르침, 미사 와 성사, 사랑과 봉사를 통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에 대한 신자들의 실천 정도를 알아보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3-1 이번 '신앙의 해'를 계기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귀담아 들으며, 필사하거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저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3-2 이번 '신앙의 해'를 계기로 아침과 저녁기도를 통해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과 함께하고, 어디서든 삼종기도와 식사기도를 반드시 바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저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3-3 이번 '신앙의 해'를 계기로 아침과 저녁기도 등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다.

- ① 매일( )
- ② 일주일에 한번 이상( )
- ③ 어쩌다 생각나면 한두 번( )
- ④ 하지 못한다.( )
- ⑤ 기타(무엇: )

3-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저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3-5 이번 '신앙의 해'를 계기로 미사참례와 영성체를 자주 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보다 적극적인 본당 소공동체나 단체 활동을 통해 일치의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저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3-6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보다 더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루 하루의 삶을 통해 열심히 선교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봉사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저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3-7 이번 '신앙의 해'는 앞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① 매우 그렇다.( )
- ② 그저 그렇다.( )
- ③ 보통이다.( )
- ④ 그렇지 않다.( )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3-8 지금까지 '신앙의 해'를 보내며 느끼거나 바라는 바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로 세 가지를 1, 2, 3 번호를 기입해주십시오.

- ① 소공동체 중심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
- ② 형식적 행사위주보다 신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③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④ 소외받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 ⑤ 교황 프란치스코의 사상과 철학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
- ⑥ '신앙의 해'를 더욱 뜻 깊게 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한다.( )
- ⑦ '신앙의 해'에 관한 더욱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
- ⑧ 성직자와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
- ⑨ 성경과 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마련이 필요하다.( )
- ⑩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
- ⑪ 기타(무엇: )

IV. 다음은 신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본인이 현재 내고 있는 교무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
- ②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 ③ 형편상 못 내고 있다.( )
- ④ 다소 부담이 된다.( )
- ⑤ 내어본 경험이 없다.( )

2. 본인이 현재 내고 있는 주일헌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
- ②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 ③ 형편상 못 내고 있다.( )
- ④ 다소 부담이 된다.( )
- ⑤ 기타 의견( )

3. 선교에 대한 의무감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 ① 매우 느낀다.( )
- ② 가끔 느낀다.( )
- ③ 별로 느끼지 않는다.( )
- ④ 전혀 느끼지 않는다.( )
- ⑤ 기타 의견( )

4. 구역반과 소공동체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 항상 참여한다.( )
- ② 자주 참여한다.( )
- ③ 가끔 참여한다.( )
- ④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
- ⑤ 기타(무엇? )

5. 십계명을 어느 정도 준수하십니까?

- ① 매우 준수한다.( )
- ② 준수하는 편이다.( )
- ③ 준수하지 않는다.( )
- ④ 잘 모르고 있다.( )
- ⑤ 기타(무엇: )

V. 다음은 일상생활에서의 천주교 신자의 의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낙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선택의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 )
- ② 부부간에 원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 허용해야 한다.( )
- ③ 강간, 근친상간의 경우 허용해야 한다.( )
- ④ 낙태는 살인행위이다.( )
- ⑤ 모르겠다.( )
- ⑥ 기타(무엇: )

2.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일로서 금해야 한다.( )
- ② 불임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해야 한다.( )
- ③ 판단은 부부에게 맡겨야 한다.( )
- ④ 교회의 금지정책을 모르고 있었다.( )
- ⑤ 교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즉 인정해야 한다.( )
- ⑥ 모르겠다.( )
- ⑦ 기타(무엇: )

3. 안락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
- ② 경제적 압박이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 ③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
- ④ 잘 모르겠다.( )
- ⑤ 기타(무엇: )

4. 사형제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사형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 ② 흉악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
- ③ 흉악범죄가 사라지기전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해야 한다.( )
- ④ 잘 모르겠다.( )
- ⑤ 기타(무엇: )

5. 일상생활에서 천주교 신자라는 의식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 ① 항상 의식하고 생활한다.( )
- ②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
- ③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활한다.( )

6.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직자의 세금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성직자도 반드시 납세해야 한다.( )

- ② 어떤 일이 있어도 성직자의 납세는 반대한다.( )
- ③ 아직 조세제도가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시기상조이다.( )
- ④ 잘 모르겠다.( )
- ⑤ 기타(무엇: )

VI. 현재 한국교회의 신앙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1. 한국 교회도 유럽이나 중남미처럼 신앙의 위기에 당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 ① 매우 공감한다.( ) -
- ② 조금 공감한다.( ) - ☞ 1-1로 가시오.
- ③ 보통이다.( ) -
- ④ 공감하지 않는다.( )
- 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1-1 (① ~ ③응답자만) 현재 한국교회도 신앙위기에 당면하고 있다면 그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으로 세 가지만 골라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① 물질만능주의 풍조( )
- ② 개인적 이기주의( )
- ③ 무신론적 과학의 발달과 문화적 세속주의( )
- ④ 영성적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교회( )
- ⑤ 샤머니즘, 사주팔자 등 유사 종교의식 만연( )
- ⑥ 종교의 사회적 책임 회피( )
- ⑦ 세상의 변화에 둔감한 성직자들의 자세( )
- ⑧ 일부 종교인들의 위선과 비리( )
- ⑨ 성직자 중심주의적 사고와 평신도의 불만 증대( )
- ⑩ 기타 의견( )

2. 한국 교회의 문제로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골라 심각한 순서대로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① 늘어나는 쉬는 신자( )
- ② 주일 미사 참례자 수의 감소( )
- ③ 청소년과 젊은 층 신자의 감소에 따른 성직자·수도자 지원 감소( )
- ④ 교무금과 헌금의 감소에 따른 교회재정의 궁핍화( )
- ⑤ 신자의 고령화( )
- ⑥ 기타 의견( )

3.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다음의 방안 중 중요도 순으로 세 가지만 골라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성직자의 엄격한 도덕성 및 사회적 귀감( )
- ② 신앙공동체 활동의 강화( )
- ③ 신앙인들이 솔선수범과 봉사( )
- ④ 적극적인 선교활동 전개( )
- ⑤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목소리( )
- ⑥ 가톨릭에 대한 외부의 오해불식을 위한 적극성( )
- ⑦ 보다 투명한 교회의 운영( )
- ⑧ 기타 의견( )

**VII. 끝으로, 한국 평협의 활동에 관한 물음입니다.**

창립 45주년을 맞은 한국 평협의 향후 바람직한 활동으로서 우선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다음 중 중요한 순서대로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① 가정·사회·문화 복음화 활동( )
- ② 정치쇄신 등 정치발전에 대한 관심과 활동( )
- ③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자, 저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 )
- ④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 )
- ⑤ 사형제도 폐지, 낙태 근절 등 생명보전 활동( )
- ⑥ 남북통일과 민족화해를 위한 노력( )
- ⑦ 청소년 선도 및 도덕성 회복운동( )
- ⑧ 평신도 지도자 양성과 평신도 교육 활동( )
- ⑨ 기타 의견( )

끝까지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앙의 해의 자기 쇄신을 통한 한국교회 평신도 사도직의 새 진로”

최혜영 수녀(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

### 들어가는 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1962.10.11.) 50주년, 『가톨릭교회 교리서』 반포(1992.10.11.) 20주년을 기념하며 ‘새 복음화’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던 ‘신앙의 해’(2012.10.11.-2013.11.24.)가 저물어 가고 있다.

지난 한 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과 ‘새 복음화’ 정신을 촉구하며 마련되었던 풍성한 심포지엄과<sup>60)</sup> 사목적 실천 노력들이 한국 천주교회에 많은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생각한다.

발제자는 신앙의 해를 마무리하며 ‘한국교회 평신도 사도직의 진로’를 생각할 때, 그동안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와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가 한국교회의 평신도 사도직 방향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던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두 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할지 성찰하고자 한다. 이는 발제자가 지난 2005년 이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논의되었던 바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 1.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의 정체성과 역할

평신도사도직위원회는 1994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평협과 평신도사도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교회의 전국위원회 기구로 설립되었으나 거의 활동을 하지 않던 상황에서, 2000년 여성소위원회가 산하 위원회로 발족 활동을 개시하였다.

2004년 준비위원회를 거쳐 2005년 3월 평신도사도직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대한 연구와 조사, 한국 교회의 평신도 활동에 대한 세미나,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교육”을 주요 활동과 사업으로 삼았다.

2005년 이래 정기회의, 연수, 세미나 등을 통해 “교회 내 평신도의 역할과 사도직에 대한 사명”, “평신도 사도직[단체] 협의회의 정체성과 방향”에 관한 꾸준한 논의를 하였고, 그 성과로 한국 교회 안에서 <한국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였고,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는 “전국 차원에서 평신도 사도직 방향을 정립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자리매김하였다.

60)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평신도사도직”(2012.10.11.);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종교연구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새 복음화’와 한국 천주교회”(2012.11.2.-3); 인천가톨릭대학교 ‘신앙의 해’ 국제학술심포지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한국천주교회의 쇄신과 미래”(2013.4.2.); 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제40차 학술회의, “신앙의 해에 요청되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복음화”(2013.11.16.) 등.

그렇다면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 무엇보다 주교회의 2004년 추계총회에서 승인된 평신도사도직위원회 회칙에 명시된 목적을 상기하고 그에 따라 활동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2조(목적)에 따르면,<sup>61)</sup> 첫째 선교적 친교의 교회론에 비추어 평신도의 공동 책임성을 존중하고, 둘째 평신도들의 다양한 체험을 계시와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연구·평가하도록 하고, 셋째 평신도들이 개인으로든 운동·단체를 통해서든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각자 고유한 방법으로 교회 생활과 사명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 2010년 아시아평신도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한 후 세계 보편교회와 아시아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커졌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한국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때 보편교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 제8조(소위원회) 조항을 보면,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야를 다루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평신도 운동과 단체,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의 소명과 사명, 청소년, 중장년, 노년(제3기 인생)”을 명시하였고, 제11조(활동방법)에서 “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각종 회의, 연구 모임 등을 통해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제반 문제를 연구하고 국내외의 관련 교회 단체들과 긴밀한 연결망을 유지하며 활동한다.”고 되어 있다. 주교회의 산하 여러 위원회와 교구 사목국, 사도직 단체 등과 긴밀한 유대를 맺으면서 평신도 사도직과 관련된 큰 주제를 이끌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느 한 쪽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일 때 교회 안에 공론화 할 수 있도록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면 바람직 할 것이다. 주교회의는 선교사목주교위원회를 청소년사목위원회, 가정사목위원회, 문화위원회, 민족 화해위원회, 복음화위원회로 구성하고 있는데, 선교사목주교위원회 소속 위원회만이라도 연중 계획을 짤 때, 공동으로 기획하면서 서로 연계 방안을 찾으면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 또, 주교회의 차원에서 중점으로 노력할 사안이 결정되면 주교회의 산하 여러 위원회가 공동으로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대표가 모인 가운데 공동 심포지엄 혹은 개별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통합적인 사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여성소위원회의 활성화와 여성사목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sup>62)</sup> 여성소위원회의 경우 발족 초기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의 소명과 사명’을 강조하던 열정이 많이 약화된 인상을 받게 되는데, 가정, 교육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와 활동 내용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하더라도 여성사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성 신자를 육성하는 것이 활기 있는 교회를 만드는 데 지름길이 되고, 여성사목이 가정, 청소년, 노인, 사회복지 등 다른 여러 사목을 아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평신도사도직위원회의 활동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포괄적이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듯이 여성소위원회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지만 본당에서의 여성 사목을 활성화하는 등 꼭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여성소위원회는 가톨릭여성신학회, 가톨릭여성연구원, 새세상을 여는

61) 제2조(목적)은 “1. 위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선교적 친교의 교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평신도의 존엄성과 교회 생활에서 평신도의 공동 책임성을 존중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대화하고, 교우들이 삶의 현장에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위원회는 평신도들의 현재 질서를 복음의 정신으로 충만히 채울 특별한 책임을 다하도록 그에 필요한 것과 어려움을 알아내고, 이들의 다양한 체험을 계시와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연구·평가하여 주교회의에 전달한다. 3. 위원회는 성령께서 개인과 운동 단체와 공동체 생활에서 복돋워 주시는 바를 주의깊게 고려하면서, 이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개인으로든 운동·단체를 통해서든 각자 고유한 방법으로 교회 생활과 사명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62) 최근 우리 사회뿐 아니라 교구,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차원에서도 사회사목, 노동사목, 여성사목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의미가 있는 사목이라면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천주교 여성공동체 등 독자적인 여성 단체 등과 적극적인 연계 속에서 상호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가톨릭 여성협의회가 “교구 간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여 한국 여성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 가톨릭 여성단체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회칙개정을 주교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 있는데, 무엇보다 여성 사도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2.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의 정체성과 역할

한국 평협은 오랜 논의 끝에 2010년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회법과 교회론에 따른 교회의 사목 구조 안에서 그 정체성과 역할을 새롭게 자리매김하였다. 평협은 소속된 단체의 활동을 대표하며, 이 협의회는 회원은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된다.

그러나, 교구마다 평협의 역사, 발전 배경이 다르고, 전국 평협이 구성된 다음에 교구 평협이 구성되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여 갈지 난제가 놓여 있다고 보이지만, 평사와 평협의 긴밀한 연계, 주교회의의 공동 이해를 통해 점차 그 위상이 분명해 질 것으로 본다.

평신도 대표성의 문제는 교회의 사목 구조 안에서 주교 중심으로 운영되겠지만,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평신도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평협이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평신도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금까지의 노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교구 차원의 평신도 사목에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까지 평신도 사도직이 본당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왔다면, 앞으로 새 복음화 활동은 훨씬 넓은 사회 연계망 안에서 펼쳐질 것이므로, 직장, 전문직, 동호회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포괄할 수 있도록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영역에서 기대 사항을 펼쳐본다.

### 1) 토착화한 평신도 신학

2010년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 대회>를 마치면서 한국 교회는 아시아 복음화의 핵심 과제인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 다문화, 다종교와의 대화, 토착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특히 분단된 현실 안에서 아시아 평화 구축과 공산국가의 복음화에 대한 부르심을 들었다.<sup>63)</sup>

‘신앙의 해’에 ‘새 복음화’의 구체적 실천으로서 『가톨릭교회 교리서』와 사회 교리의 보급과 교육을 촉구하였다. 이는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한 ‘새로운 복음화’ 과제가 성숙한 신앙을 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 사목에 대한 관심과 ‘사회 교리’의 보급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비자 교리부터 견진 교리, 신앙 재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 교리의 핵심 내용들이 신자들에게 전해져야 하고 신자들의 삶 안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교구 사목국이 2011년 10월 발표한 『‘새로운 복음화’ 개념 연구 및 사

63) 발제자가 2010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의 전망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아시아 지역 안에서 한국 교회의 내적인 전망과 역할” 참조.

목적 모색』에서 제시한 ‘현장 중심의 복음화’, ‘사랑의 실천’, ‘인격적인 만남’,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 ‘정의’, ‘환경 및 생태윤리’, ‘생명의 문화 건설’ 등 사회 교리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란다.

평신도 신학의 과제는 평신도를 그리스도교 공동체 건설에 참여자이며 공동 책임자로 키워내는 일이라고 하겠는데, 결국 평신도 영성은 현세 질서의 복음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정신의 성숙과 발전을 이루어갈 ‘사회참여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 2) 평신도 양성과 교육

최근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가 평신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명도회 장학금’을 상설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천주교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우수한 대학 입학 예정자 혹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원, 그리고 교회 학문 연구활동에 지원하는 학술 연구 지원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지는 평신도 인재 양성의 노력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다(가톨릭신문, 2013.10.27.일자 2면).

나아가 평협 차원에서도 평신도 인재, 지도자 양성을 위해 연구소를 활성화하고 장학금, 연구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재 발굴과 양성은 다양한 통로로 이루어질 때 더 풍성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폭넓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장기 계획을 가지고 평신도 신학자를 양성하고, 기존의 <사회사도직연구소>를 활성화한다면 교회 소속 연구소와는 또 다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할 때 타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일반 사회 기관에서 가톨릭 정신을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평신도 인재를 발굴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신자들의 신앙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앙 발달 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평신도 교육을 마련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인생 주기에 따른 평생교육을 교회가 앞장서서 펼쳐 나간다면 대사회적으로도 큰 기여가 될 것이다.<sup>64)</sup>

## 3) 평신도 운동과 단체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성격상, 앞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평신도 운동과 단체가 생겨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 평신도 사도직 단체의 활동은 ① 식별의 기준이 그리스도인 성화의 소명을 으뜸으로 삼아야 하고, ② 활동을 통해 가톨릭 신앙 고백의 책임이 드러나고, ③ 친교의 증거가 되어야 하고, ④ 교회의 사도직 목적은 성화로 나타나며, ⑤ 인간 사회에서 교회의 현존을 위한 투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단체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으므로 여러 단체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단체들이 위축되지 않고 스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협 차원에서는 각 단체가 세상 안에서 세속주의, 물질주의, 무신론적 문화의 극복하고 좀 더 복음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

64) 2007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 사회사도직연구소 세미나(2007.8.31.-9.1)에서 평신도 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발표들이 있었는데,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평신도 교육과 활동”(민병덕), “신심단체를 통한 평신도교육의 현황과 미래”(이윤식), “중장년의 신앙단계별 인재양성을 위한 탐구적 모델”(조은상), “한국가톨릭교회 평신도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오용석), “가톨릭 신자의 평생교육을 위한 제언”(정찬남)등.

### 3. 세상 안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로 복음 전하기

그밖에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을 덧붙이자면,

- 인구의 감소 현상과 함께 젊은이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젊은이 사목의 중요성을 인식 하면서, 현실의 필요에 응답하는 통합적인 사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열의, 새로운 방식, 새로운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새 복음화'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 인터넷 선교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

- 평신도 사도직은 무엇보다 삶의 현장에서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역사회, 타종교 단체 등 시민사회와 연계가 필요하다. 예)용산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 <우리신학 연구소>, <신앙인 아카데미>, <가톨릭뉴스 지금 여기> 등 교회 내 진보적인 단체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회 내 건전한 비판 세력의 육성이야말로 쇄신하는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

- 사제 성소, 수도 성소 계발에 힘써야 하는 것도 평신도의 몫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가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면 이제야말로 신앙의 성숙, 질적 성장을 이루어 갈 때이다. 수도회와 연계된 제3회, 기도모임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초기교회에서 활발했던 재가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수도생활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사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적극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는 못하지만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교회가 언제라도 이들을 환영하며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 참고 자료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1988.12.30)
- 교황 베네딕토 16세, '신앙의 해' 제정 자의 교서 『믿음의 문』(2011.10.11.)
-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열두 가지 제안』(The Formation of the Laity), 1987.
- 교황청 평신도 평의회, 『평신도 그리스도인- 균형과 전망』,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편찬, 양해룡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2.
- 김남희,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운영기획(안)”, 2012.9.19, 평사위 정기회의 발표문.
- 박정우, 「'새 복음화'의 실천 원리로서의 사회 교리와 한국교회 현황」, 『가톨릭신학과 사상』제70호(2012/겨울), 233-273.
- 오세일, 「한국천주교회와 사회참여 영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서 본 새로운 복음화의 과제」, 『신학과 철학』제22호(2013/봄), 115-148.
- 차동엽, 「사목현장 정신에 따른 한국천주교회의 새 복음화 방안 모색」, 『누리와 말씀』제33호(2013.6), 207-262.
- 최흥준,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활동”, 2013.3.20, 평사위 정기회의 발표문.
- 황경훈, 「'새로운 복음화'와 아시아 교회: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와 FABC의 복음화관 고찰」, 『신학전망』제180호(2013/봄), 34-73.

부록I: 빈도분포

(표2-1) 응답자 성별

항목	①남성	②여성	총계
응답자수(명)	500	884	1384
비중(%)	36	64	100

(표2-2) 응답자 출생년도

항목	①1960년이전	②1960년대	③1970년대	④1980년대	⑤1990년대	총계
응답자수(명)	753	341	141	99	50	1384
비중(%)	54	25	10	7	4	100

(표2-3) 응답자 결혼여부

항목	①미혼	②기혼	총계
응답자수(명)	164	1220	1384
비중(%)	12	88	100

(표2-4) 응답자 자녀수

항목	①0명	②1명	③2명	④3명	⑤4명	⑥5명	총계
응답자수(명)	177	121	792	224	63	7	1384
비중(%)	13	9	57	16	5	1	100

(표2-5) 응답자 세례년도

항목	①1960년이전	②1960년대	③ 1970년대	④1980년대	⑤1990년대	⑥2000년대	⑦2010년이후	총계
응답자수(명)	85	118	149	366	317	234	115	1384
비중(%)	6	9	11	26	23	17	8	100

(표2-6) 응답자 입교동기

항목	① 자발적으로( )	② 친구, 가족 등 타인의 권유로( )	③ 교우의 인도로( )	④ 태중교우(모태신앙)( )	⑤ 기타(무엇: )	N/A	총계
응답자수(명)	470	528	121	206	49	10	1384
비중(%)	34	38	9	15	4	1	100

(표2-7) 응답자의 직업

항목	① 경영관리사무직( )	② 공무원( )	③ 기술직( )	④ 자영업( )	⑤ 전문직( )	⑥ 서비스 판매 영업직( )	⑦ 농업 임업 수산업( )	⑧ 생산 단순 노무직( )	⑨ 주부( )	⑩ 학생( )	⑪ 기타(무엇: )	N/A	총계
응답자수(명)	99	68	64	157	120	50	6	13	631	64	93	19	1384
비중(%)	7	5	5	11	9	4	1	1	46	4	7	1	100

(표2-8) 응답자의 학력

항목	① 초등학교 이하( )	② 중학교( )	③ 고등학교( )	④ 대학교( )	⑤ 대학원 이상( )	⑥ 기타( )	N/A	총계
응답자수(명)	36	87	467	651	120	7	16	1384
비중(%)	3	6	34	47	9	1	1	100

(표2-9) 입교동기

항목	① 자발적으로( )	② 친구, 가족 등 타인의 권유로( )	③ 교우의 인도로( )	④ 태중교우(모태신앙)( )	⑤ 기타(무엇: )	N/A	총계
응답자수(명)	470	528	121	206	49	10	1384
비중(%)	34	38	9	15	4	1	100

(표3-1) 미사참례빈도

항목	① 일주일에 한번 주일미사( )	② 1주일에 2-3번( )	③ 매일( )	④ 간헐적으로( )	⑤ 성탄절, 부활절 등 특별한 때만( )	N/A	총계
응답자수(명)	177	630	502	52	19	4	1384
비중(%)	13	46	36	4	1	0	100

(표3-2) 고해성사 빈도

항목	① 성탄과 부활 판공성사 때만( )	② 1년에 4-5번( )	③ 한 달에 한번 이상( )	④ 간헐적으로( )	⑤ 거의 없다.( )	N/A	총계
응답자수(명)	100	611	572	47	51	3	1384
비중(%)	7	44	41	3	4	1	100

(표3-3) 기도횟수

항목	① 일주일에 한번 이상( )	② 매일( )	③ 간헐적으로( )	④ 하지 못한다.( )	⑤ 기타(무엇?)	N/A	총계
응답자수(명)	846	295	164	68	6	5	1384
비중(%)	61	21	12	5	1	1	100

(표 3-4) 성경읽기

항목	① 매일 읽는다.( )	② 일주일에 2-3회 읽는다.( )	③ 가끔 생각날 때 읽는다.( )	④ 전혀 읽지 않는다.( )	N/A	총계
응답자수(명)	262	366	537	209	10	1384
비중(%)	19	26	39	15	1	100

(표4-1) 신앙의 해가 선포된 이유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항목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어렵듯이 알고 있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모른다.( )	N/A	총계
응답자수(명)	317	666	301	89	11	1384
비중(%)	23	48	22	6	1	100

(표 4-1-1) (①과 ②응답자만) '신앙의 해' 선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교회와 성직자가 제 사명을 잘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② 갈수록 냉담자 증가로 신자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③ 세상의 유행과 타락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	④ 세속주의, 상대주의와 함께 무신론이 만연해진 때문이다.( )	⑤ 신자들이 성경과 교리를 소홀히 하는 풍조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	⑥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막 50주년과 「가톨릭교회 교리서」반포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	⑦ 기타.(무엇: )	N/A	총계
응답자수(명)	89	269	138	69	158	284	5	(372)	1012
비중(%)	9	26	14	7	16	28	0	-	100

주: 무응답 372명은 신앙의해에 대한 인식이 되어있지 않은 신자로서 집계에서 제외함.

(표 4-2) 신앙의 해에 즈음한 교구나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부 프로그램에 참가여부

항목	① 참여한 적이 있다.( ) (2-1로 가시오)	② 참여한 적이 없다.( )	N/A	총계
응답자수(명)	463	819	102	1384
비중(%)	33	59	7	100

(표4-3) 참여하신 신앙의 해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항목	① 매우 유익했다.( )	② 유익했다.( )	③ 평범했다.( )	④ 유익하지 않았다.( )	⑤ 전혀유익하지않았다.( )	N/A	총계
응답자수(명)	147	285	114	11	9	-	566
비중(%)	26	50	20	2	2	-	100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무응답자는 집계에서 제외함.



(표 4-4) 아침과 저녁기도를 통해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과 함께하고, 삼중기도와 식사기도를 빠짐없이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항목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N/A	총계
응답자수(명)	314	218	450	268	65	69	1384
비중(%)	23	16	33	19	5	5	100

(표 4-5) 이번 '신앙의 해'를 계기로 아침과 저녁기도 등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다.

항목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N/A	총계
응답자수(명)	119	131	186	831	39	78	1384
비중(%)	9	9	13	60	3	6	100

(표 4-6) 이번 신앙의 해를 계기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문헌과'가톨릭교회교리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항목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N/A	총계
응답자수(명)	132	167	396	475	131	83	1384
비중(%)	10	12	29	34	9	6	100

(표4-7)이전보다미사참례와영성체를자주함으로써더욱건강한신앙생활을하며보다적극적인본당소공동체나단체활동을통해일치의공동체신앙생활을하려고노력하고있다.

항목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N/A	총계
응답자수(명)	319	257	488	199	52	69	1384
비중(%)	23	19	35	14	4	5	100

(표 4-8)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열심히 선교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봉사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 사랑을 증거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항목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N/A	총계
응답자수(명)	239	295	571	171	40	68	1384
비중(%)	17	21	41	12	3	5	100

(표 4-9) 신앙의 해는 앞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항목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저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N/A	총계
응답자수(명)	462	301	435	91	23	72	1384
비중(%)	33	22	31	7	2	5	100

(표 4-10) 지금까지 '신앙의 해'를 보내며 느끼거나 바라는 바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로 세 가지를 1, 2, 3 번호를 기입해주시시오.

항목	① 동체 중핵심성이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	② 형식적 행사위주 보다 신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	③ '새로운' 복음화 프로그램을 필요하다.( )	④ 소외받은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	⑤ 교황스 프란치스코의 사상과 철학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	⑥ '신앙의 해'를 뜻 더욱 깊게 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 이 있었으면 한다.( )	⑦ '신앙의 해'에 관하여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	⑧ 성직자와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	⑨ 성경과 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이 필요하다.( )	⑩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	N/A	총계
1순위	1254	1083	210	270	78	78	165	78	483	75	378	4152
2순위	290	514	280	384	42	168	256	68	318	24	424	2768
3순위	111	146	118	144	36	97	123	77	238	38	256	1384
계	1655	1743	608	798	156	343	544	223	1039	137	1058	8304
비중(%)	20	21	7	10	2	4	7	3	13	2	13	100

(표5-1) 본인이 현재 내고 있는 교무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	②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③ 형편상 못 내고 있다.( )	④ 다소 부담이 된다.( )	⑤ 내어본 경험이 없다.( )	N/A	총계
응답자수(명)	645	570	39	45	62	23	1384
비중(%)	47	41	3	3	4	2	100

(표5-2) 본인이 현재 내고 있는 주일헌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현재대로가 적당하다.( )	②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③ 형편상 못 내고 있다.( )	④ 다소 부담이 된다.( )	⑤기타의견( )	N/A	총계
응답자수(명)	775	553	14	18	1	23	1384
비중(%)	56	40	1	1	0	2	100

(표5-3) 선교의 의무를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항목	① 매우 느낀다.( )	② 가끔 느낀다.( )	③ 별로 느끼지 않는다.( )	④ 전혀 느끼지 않는다.( )	⑤기타의견( )	N/A	총계
응답자수(명)	546	667	135	19	3	14	1384
비중(%)	39	48	10	1	0	1	100

(표5-4) 구역반과 소공동체에 참여하는 정도는?

항목	① 항상 참여한다.( )	② 자주 참여한다.( )	③ 가끔 참여한다.( )	④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	⑤기타(무엇?)	N/A	총계
응답자수(명)	519	246	266	328	8	16	1383
비중(%)	38	18	19	24	1	1	100

(표5-5) 십계명을 어느 정도 준수하십니까?

항목	① 매우 준수한다.( )	② 준수하는 편이다.( )	③ 준수하지 않는다.( )	④ 잘 모르고 있다.( )	⑤기타(무엇?)	N/A	총계
응답자수(명)	200	1038	78	40	9	19	1384
비중(%)	14	75	6	3	1	1	100

(표6-1) 낙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모든 선택의 권리는 여성에게 있다.( )	② 부부간에 원하지 않는 경우 임신의 허용해야 한다.( )	③ 강간, 근친상간의 경우 허용해야 한다.( )	④ 낙태는 살인 행위이다.( )	⑤ 모르겠다.( )	⑥ 기타의견( )	N/A	총계
응답자수(명)	96	208	442	530	72	7	29	1384
비중(%)	7	15	32	38	5	1	2	100

(표6-2)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불임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해야 한다.( )	② 판단은 부부에게 맡겨야 한다.( )	③ 교회의 금지정책을 모르고 있었다.( )	④ 교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즉 인정해야 한다.( )	⑤ 모르겠다.( )	⑥ 기타의견( )	N/A	총계
응답자수(명)	184	738	299	45	31	62	25	1384
비중(%)	13	53	22	3	2	4	2	100

(표6-3) 안락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 )	② 경제적 압박이 있는 경우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	③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의견( )	N/A	총계
응답자수(명)	733	203	238	169	17	24	1384
비중(%)	53	15	17	12	1	2	100

(표6-4) 사형제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사형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② 흉악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	③ 흉악범죄가 사라지기전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해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의견( )	N/A	총계
응답자수(명)	453	491	303	107	8	22	1384
비중(%)	33	35	22	8	1	2	100

(표6-5) 일상생활에서 천주교 신자라는 의식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항목	① 항상 의식하고 생활한다.( )	②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	③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활한다.( )	N/A	총계
응답자수(명)	1216	147	5	16	1384
비중(%)	88	11	0	1	100

(표6-6)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직자의 세금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① 성직자도 국민의 납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② 어떤 일이 있어도 성직자의 납세는 반대한다.( )	③ 아직 조세제도가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시기상조다.( )	④ 잘 모르겠다.( )	⑤ 기타 의견( )	N/A	총계
응답자수(명)	781	130	221	207	12	33	1384
비중(%)	56	9	16	15	1	2	100

(표7-1) 세계 교회는 새로운 복음화가 필요하고, 교황님이 신앙의 해를 선포할 만큼 신앙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러한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항목	① 매우 공감한다.( )	② 조금 공감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공감하지 않는다.( )	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N/A	총계
응답자수(명)	390	555	235	135	8	61	1384
비중(%)	28	40	17	10	1	4	100

(표7-2) 현재 한국교회도 신앙위기에 당면하고 있다면 그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순으로 세 가지만 골라 123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① 물질만능 주의( )	② 개인적 이기주의 ( )	③ 무신론 적과학의 문물적 세속주의( )	④ 영성적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교회( )	⑤ 샤머니즘 사주팔자 등 유사 종교의식 만연( )	⑥ 종교의 사회적 책임 회피( )	⑦ 세상의 변화에 둔감한 성직자들 의 자세( )	⑧ 일부 종교인들 의 위선과 비리( )	⑨ 성직자 중심주의 적 사고와 평신도 의 불만 증대( )	⑩ 기타 (무엇?)	N/A	총계
1순위	1569	1089	162	249	42	75	84	153	102	6	621	4152
2순위	422	752	180	236	42	128	134	198	112	2	562	2768
3순위	98	106	153	174	40	78	88	170	159	2	316	1384
총계	2089	1947	495	659	124	281	306	521	373	10	1499	8304
비중(%)	25.2	23.4	6.0	7.9	1.5	3.4	3.7	6.3	4.5	0.1	18.1	100

※주 : 1,2,3순위에 따라서 3점, 2점, 1점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화한 것임

(표7-3)한국교회가당면하고있는다음다섯가지문제점가운데서가장절박한신앙의위기라고생각되는세가지를골라심각한순서로123번호를기입해주십시오.

항목	① 늘어나는 신자( )	② 주일 미사 참여자 수의 감소( )	③ 청소년과 젊은 층 신자의 감소에 따른 성직자·수도자 지원 감소( )	④ 교회의 헌금의 감소와 교회재정의 궁핍화( )	⑤ 신자의 고령화( )	⑥ 기타(무엇: )	N/A	총계
1순위	2064	354	1065	51	417	27	174	4152
2순위	562	770	692	134	406	10	194	2768
3순위	175	239	285	142	387	12	144	1384
총계	2801	1363	2042	327	1210	49	512	8304
비중(%)	33.7	16.4	24.6	3.9	14.6	0.6	6.2	100

※주 : 1,2,3순위에 따라서 3점, 2점, 1점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화한 것임

(표7-4)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다음의방안중중요도순으로세가지만골라123번호를기입해주십시오.

항목	① 물질만능주의 풍조( )	② 개인적 이기주의( )	③ 무신론적 과학의 발달과 과학문화적 세속주의( )	④ 영성적 갈증을 주지 못하는 교회( )	⑤ 샤머니즘, 사주팔자 등 유사종교의 식만연( )	⑥ 종교의 사회적 책임 회피( )	⑦ 세상의 변화에 둔감한 성직자들의 자세( )	⑧ 일부 종교인들의 종교인들위선과 비리( )	N/A	총계
1순위	990	1014	1080	348	189	147	147	15	222	4152
2순위	272	606	768	358	232	180	140	0	212	2768
3순위	193	191	223	215	137	143	148	5	129	1384
총계	1455	1811	2071	921	558	470	435	20	563	8304
비중(%)	17.5	21.8	24.9	11.1	6.7	5.7	5.2	0.2	6.8	100

※주 : 1,2,3순위에 따라서 3점, 2점, 1점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화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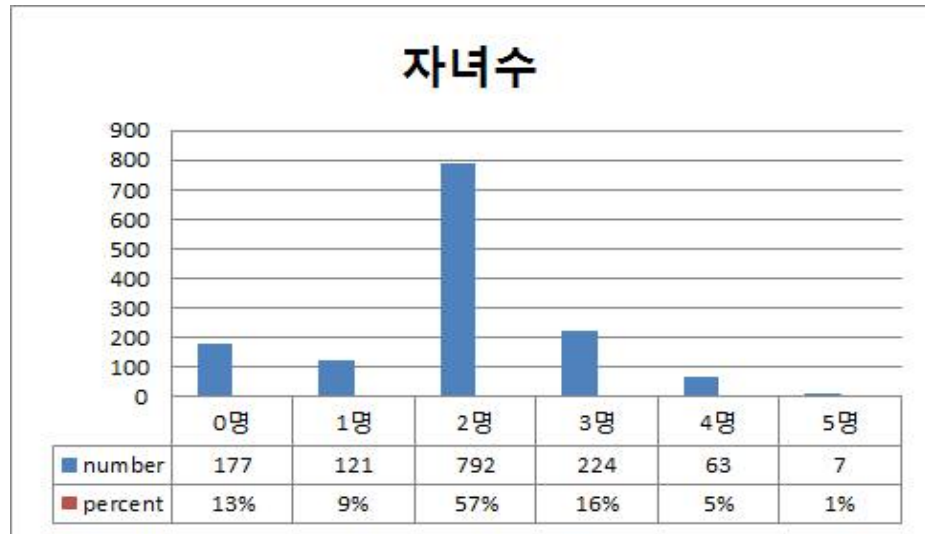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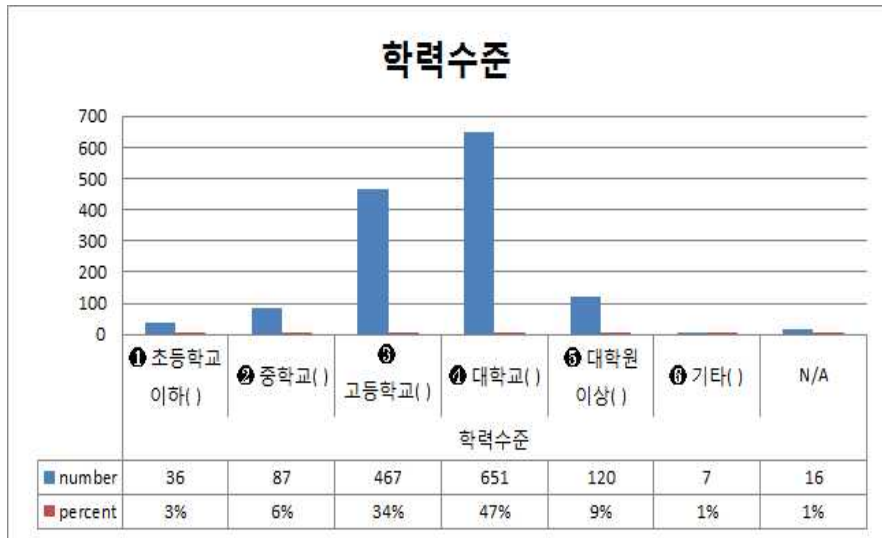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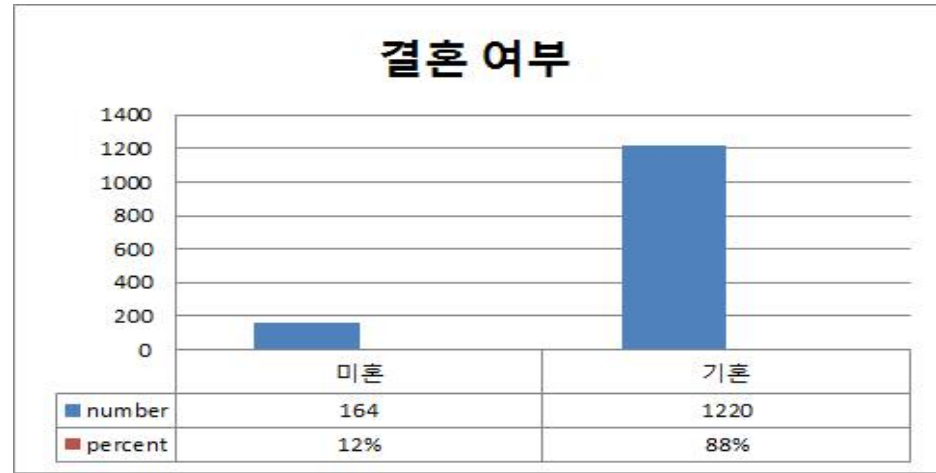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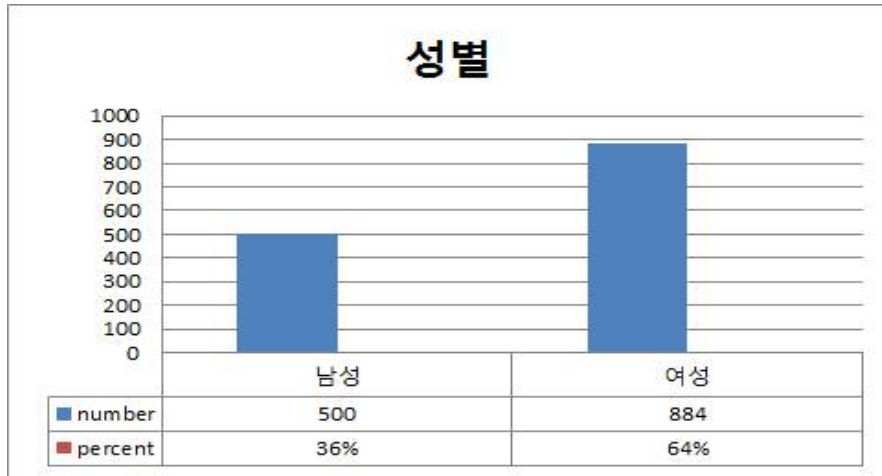
(표8-1) 한국 평협은 1968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평협의 바람직한 활동을 위해 우선해야 할 중요도 순으로 세 가지만 골라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① 가정·사회·문화 복음화 활동( )	② 정치쇄신 등 정치발전에 대한 관심과 활동( )	③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자, 저임노동자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활동( )	④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 )	⑤ 사형제도 폐지, 낙태 근절 등 생명보전 활동( )	⑥ 남북통일과 민족화해 노력을 위한 노력( )	⑦ 청소년 선도 및 도덕성회복운동( )	⑧ 평신도 지도자 양성과 평신도 교육 활동( )	⑨ 기타(무엇: )	N/A	총계
1순위	1986	114	522	171	57	102	663	345	6	186	4152
2순위	374	128	552	370	106	128	686	254	0	170	2768
3순위	172	41	217	152	46	78	321	257	2	98	1384
총계	2532	283	1291	693	209	308	1670	856	8	454	8304
비중(%)	30.5	3.4	15.5	8.3	2.5	3.7	20.1	10.3	0.1	5.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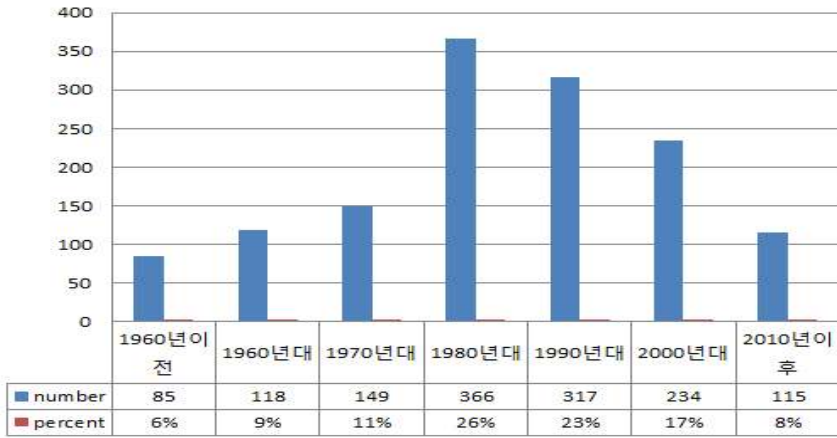
※주 : 1,2,3순위에 따라서 3점, 2점, 1점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화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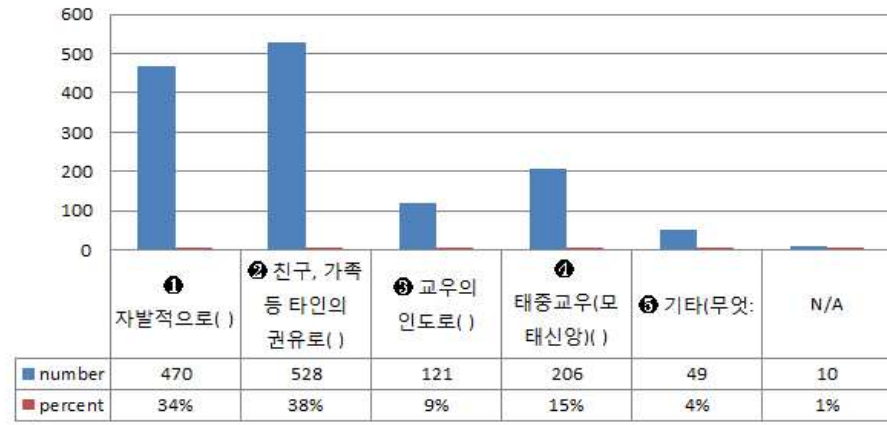
부록II: 히스토그램(hist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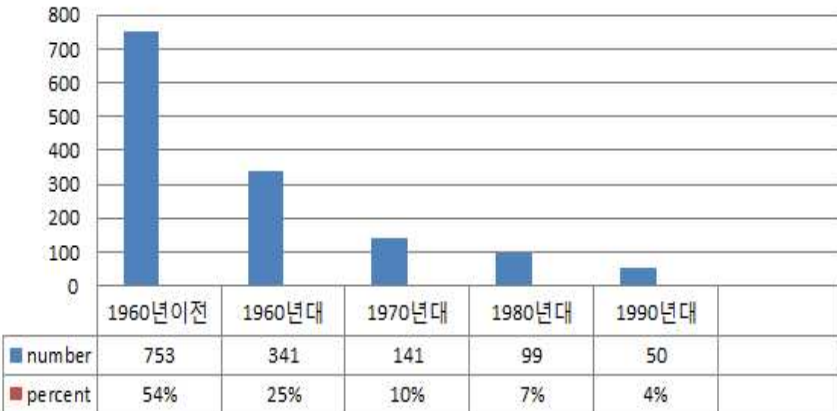
### 세례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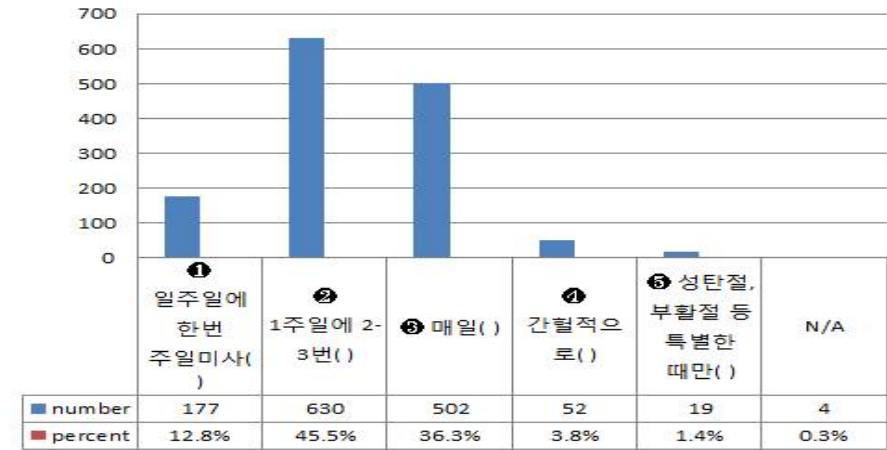
### 입교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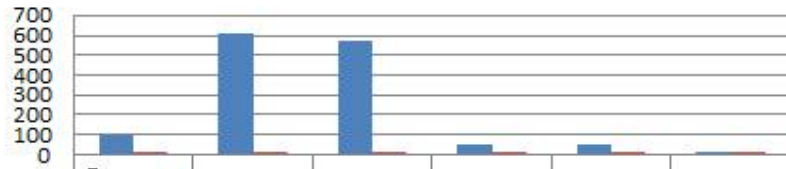
### 출생년도



### 미사참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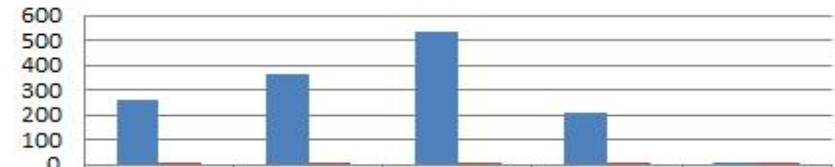


### 고해성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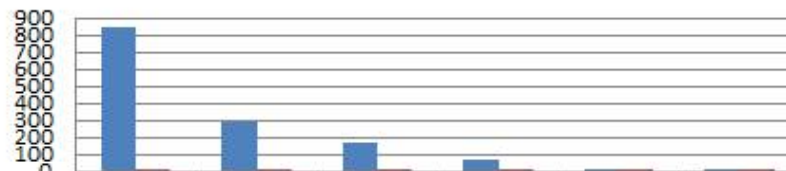
	① 성탄과 부활 판공성사 때만( )	② 1년에 4-5번( )	③ 한 달에 한번 이상( )	④ 간헐적으로( )	⑤ 거의 없다.( )	N/A
number	100	611	572	47	51	3
percent	7.2%	44.1%	41.3%	3.4%	3.7%	0.2%

### 성경읽기



	① 매일 읽는다.( )	② 일주일에 2-3회 읽는다.( )	③ 가끔 생각날 때 읽는다.( )	④ 전혀 읽지 않는다.( )	N/A
number	262	366	537	209	10
percent	18.9%	26.4%	38.8%	15.1%	0.7%

### 기도 횟수



	① 일주일에 한번 이상( )	② 매일( )	③ 간헐적으로( )	④ 하지 못한다.( )	⑤ 기타(무엇?)	N/A
number	846	295	164	68	6	5
percent	61%	21%	12%	5%	0.4%	0.4%

## 1. 신앙의 해가 왜 선포되었는지에 관해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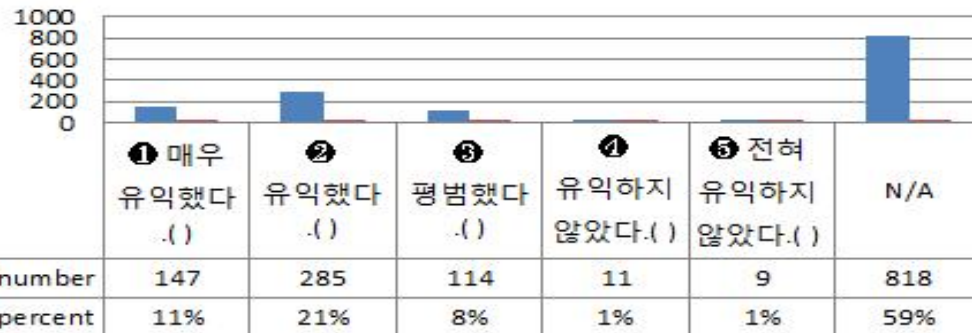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어렵듯이 알고 있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	N/A
■ number	317	666	301	89	11
■ percent	23%	48%	22%	6%	0.8%

## 2. 신앙의 해에 즈음한 교구나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부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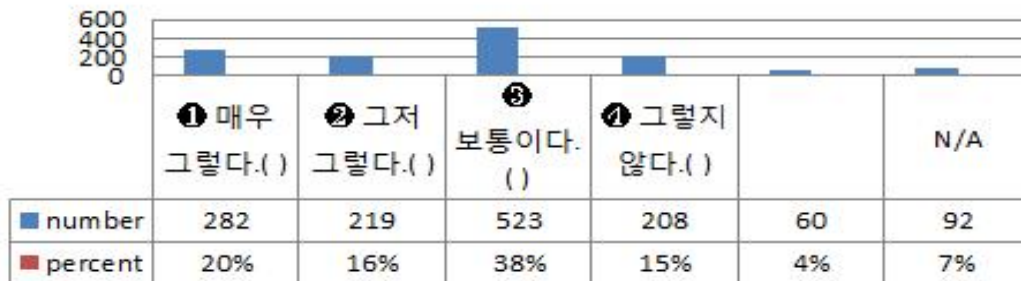


	① 참여한 적이 있다.( ) (2-1로 가시오)	② 참여한 적이 없다.( )	N/A
■ number	463	819	102
■ percent	33%	5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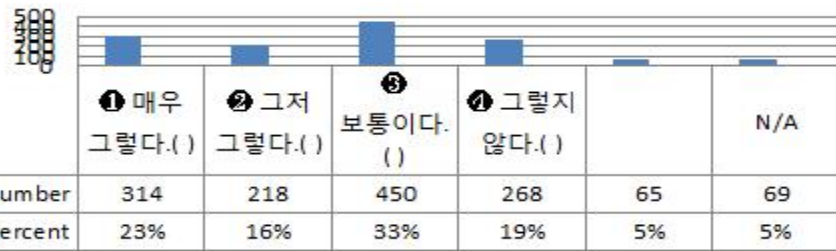
## 2-2. 참여하신 신앙의 해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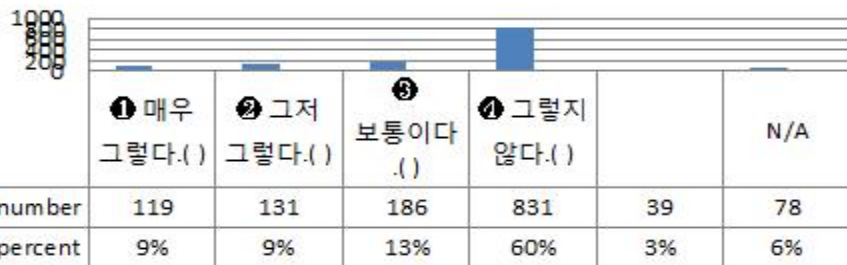
## 3-1 이전보다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귀담아 들으며, 필사하거나 삶 속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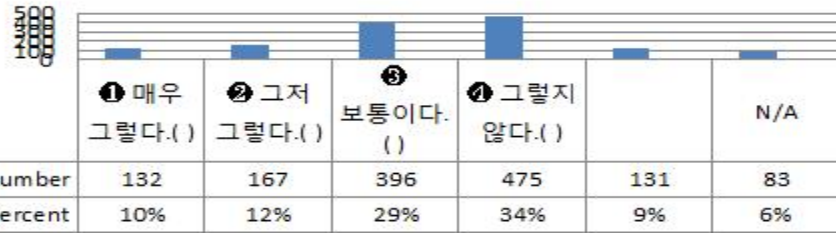
3-2 아침과 저녁기도를 통해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과 함께하고, 삼종기도와 식사기도를 빠짐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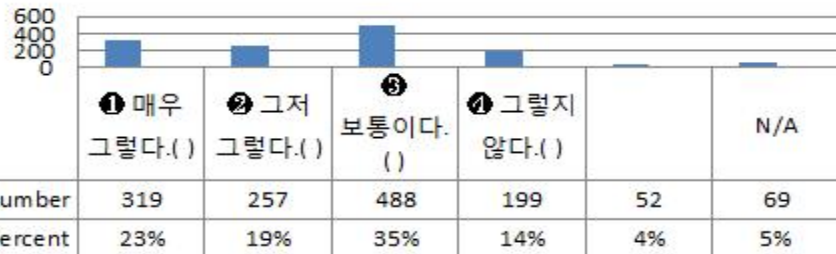
3-3 이번 신앙의 해를 계기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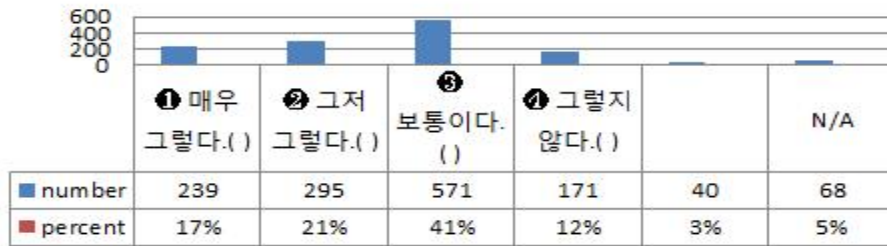
3-4 이전보다 미사참례와 영성체를  
자주 함으로써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며 보다 적극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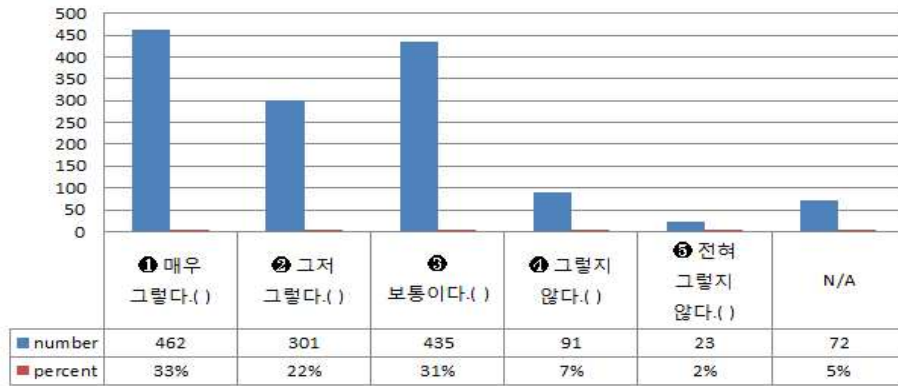
3-5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열심히...



3-6 이번 신앙의 해는 앞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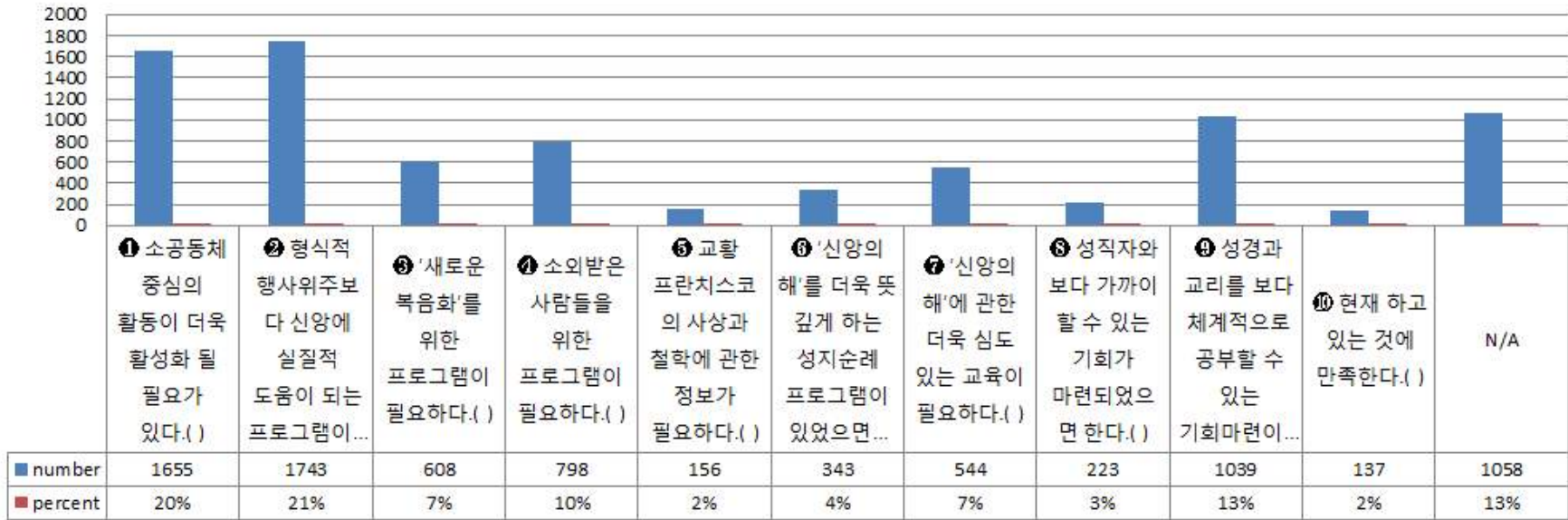


3-7 이번 '신앙의 해'는 앞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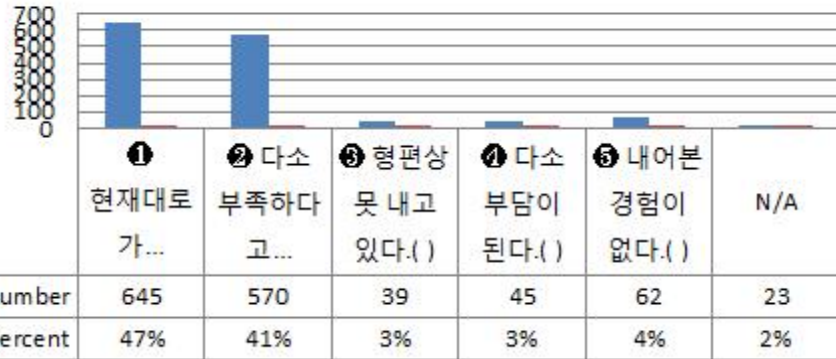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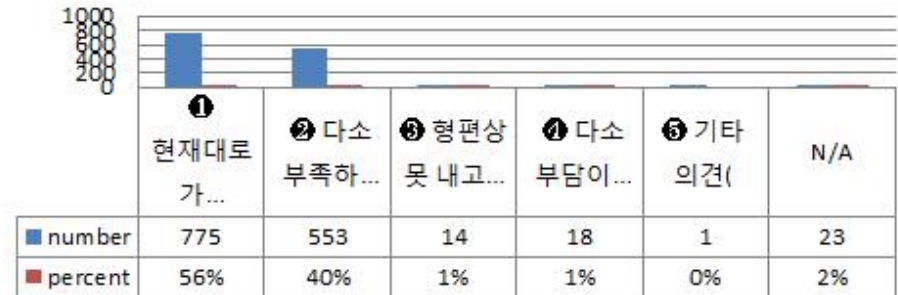
3-8 지금까지 '신앙의 해'를 보내며 느끼거나 바라는 바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로 세 가지를 1, 2, 3 번호를 기입해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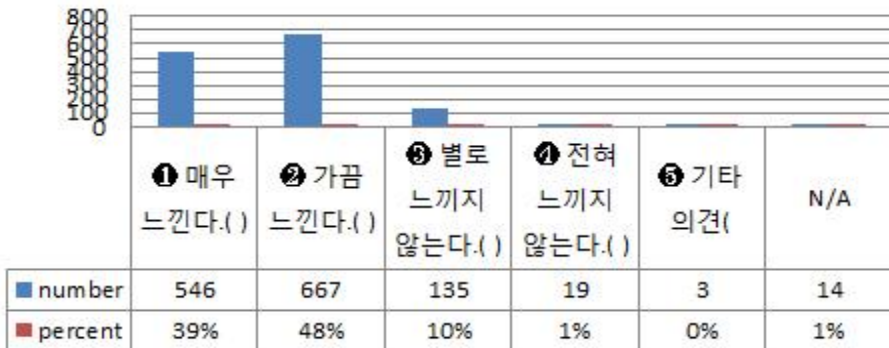
### 1. 본인이 현재 내고 있는 교무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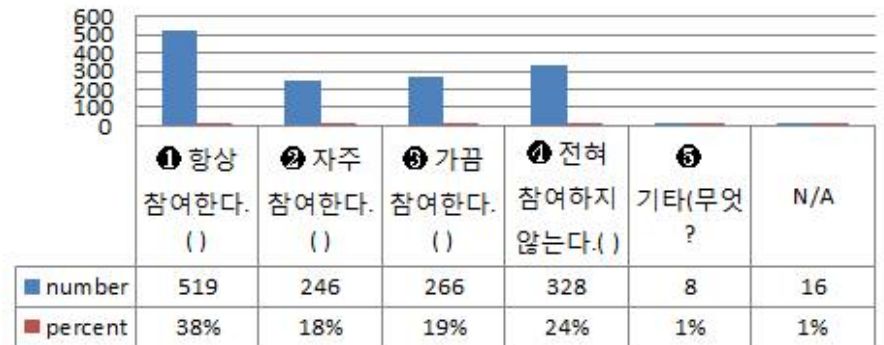
### 2. 본인이 현재 내고 있는 주일헌금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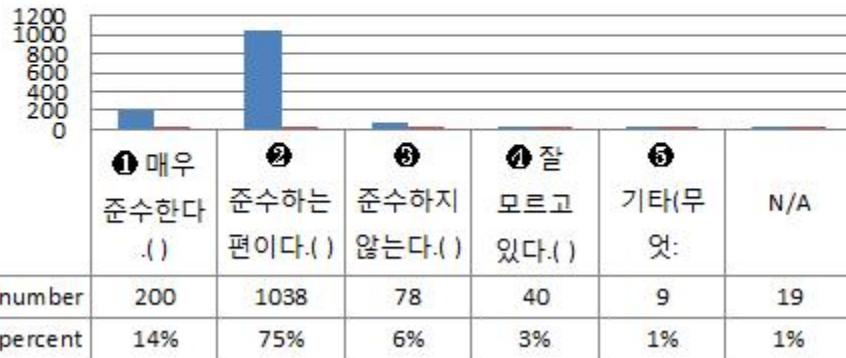
### 3. 선교의 의무를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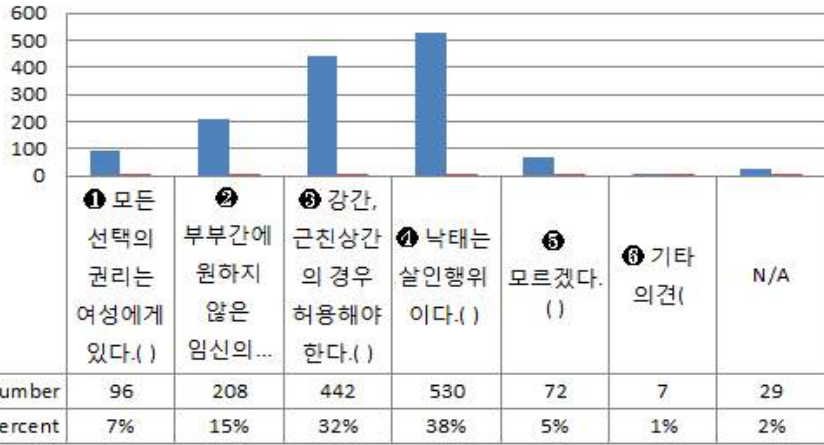
### 4. 구역반과 소공동체에 참여하는 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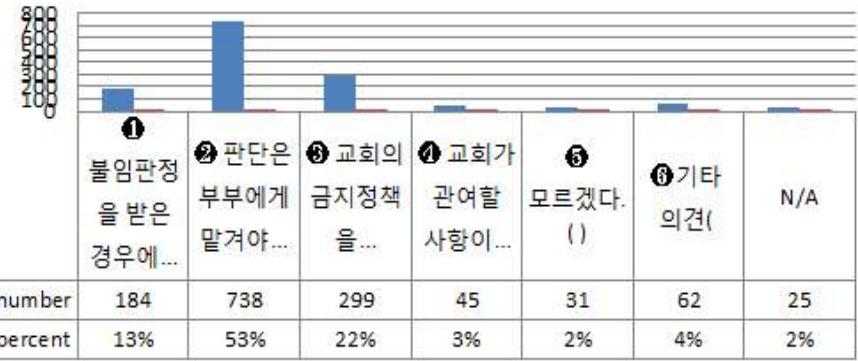
## 5. 십계명을 어느 정도 준수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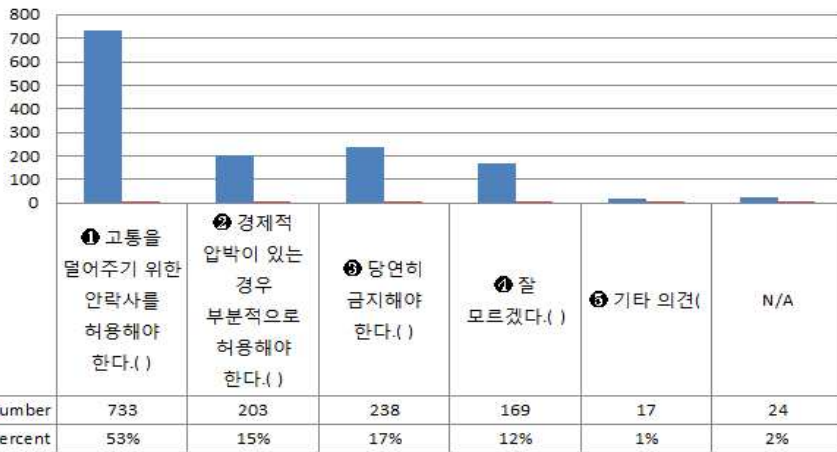
### 1.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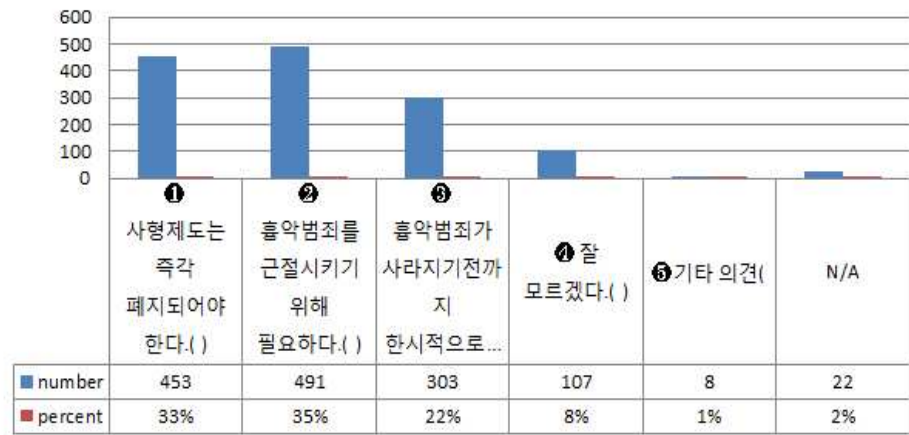
### 2.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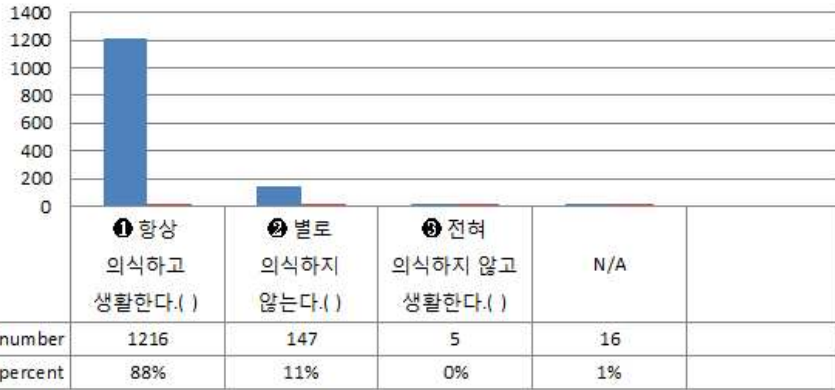
### 3.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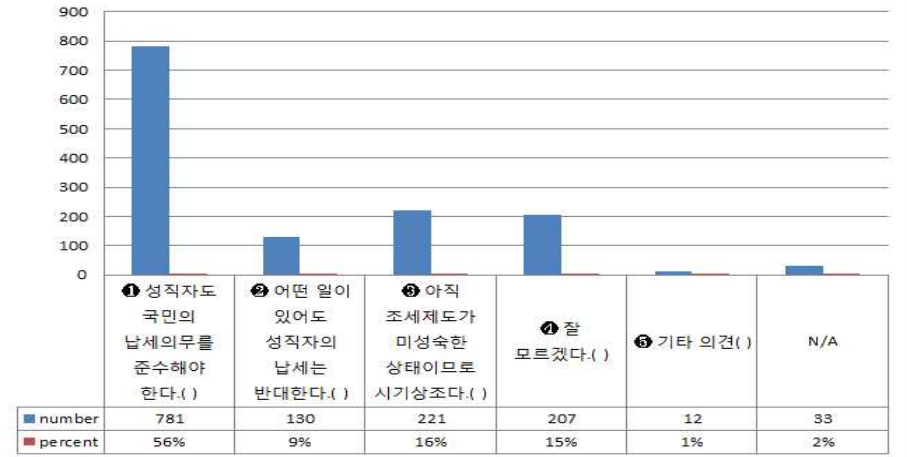
### 4. 사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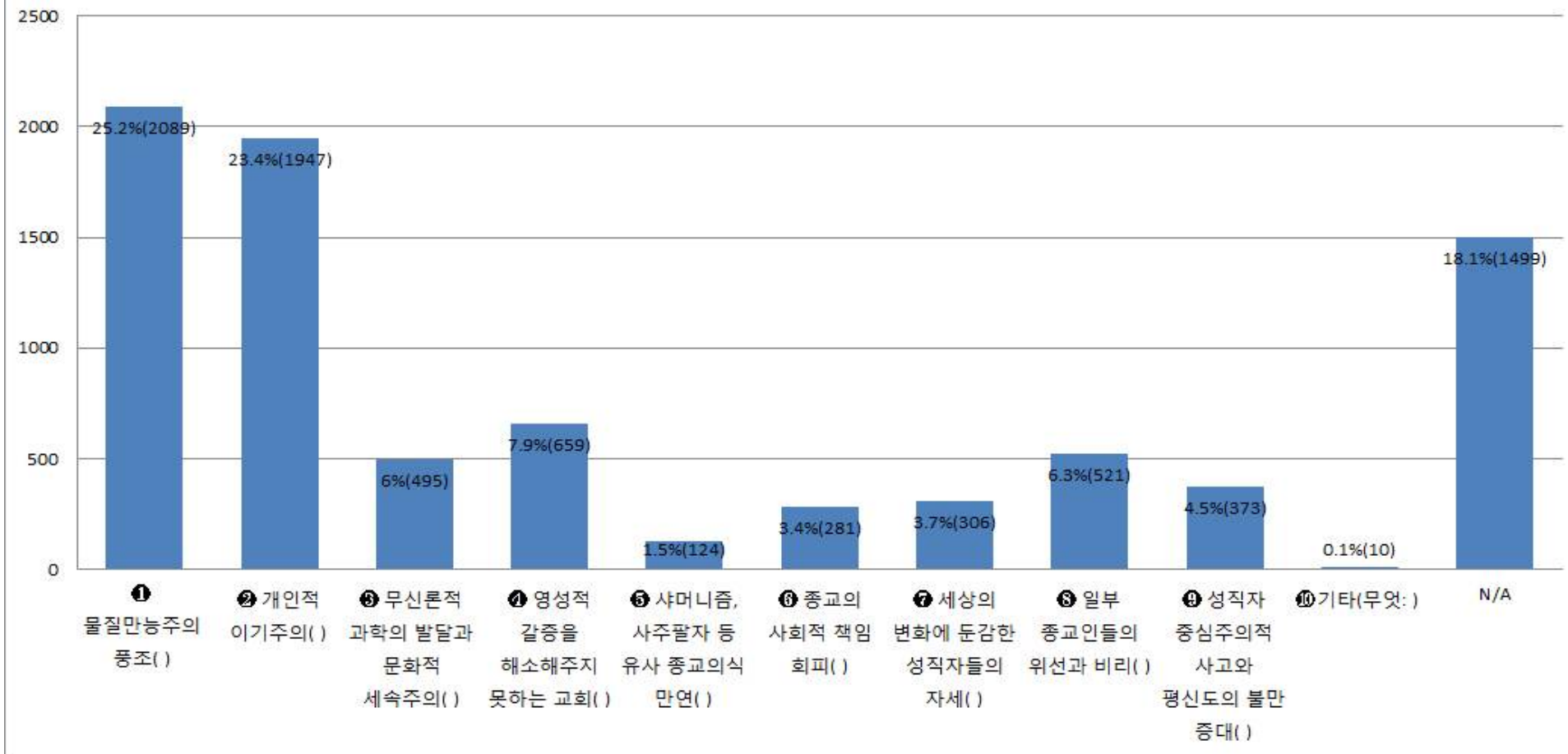
### 5. 일상생활에서 천주교 신자라는 의식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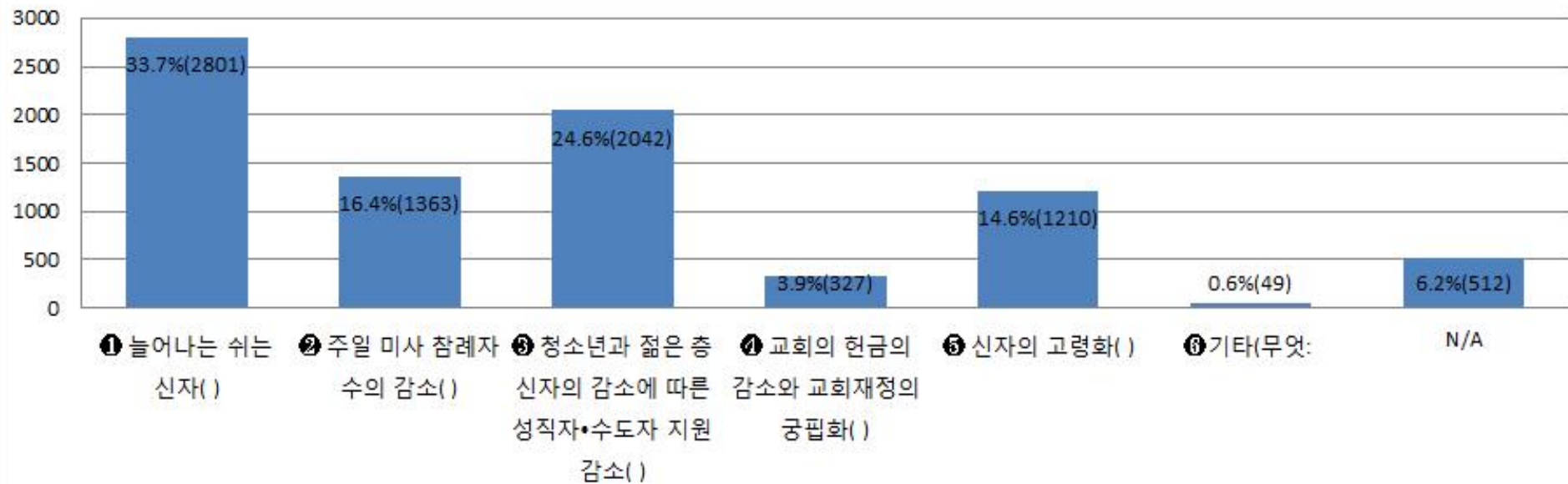
### 6.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직자의 세금부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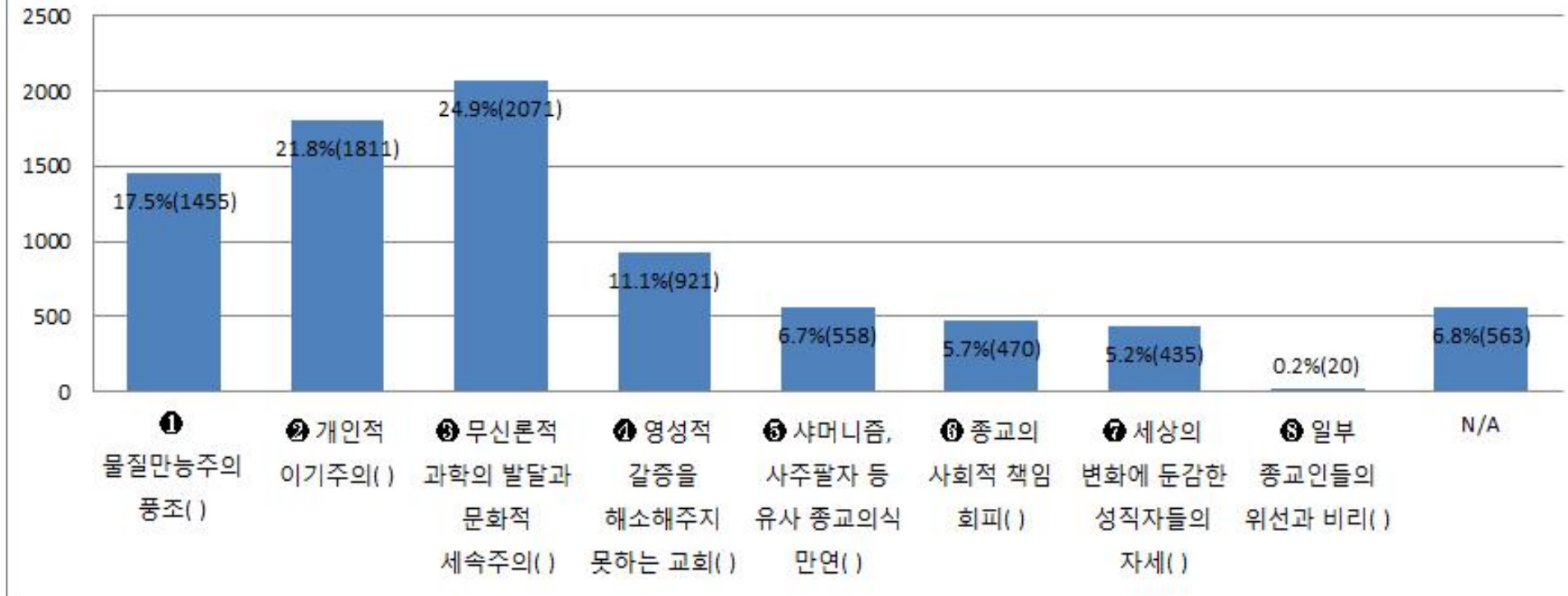
2. 현재 한국교회도 신앙위기에 당면하고 있다면 그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 순으로 세 가지만 골라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3.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음 다섯 가지 문제점 가운데서 가장 절박한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골라 심각한 순서로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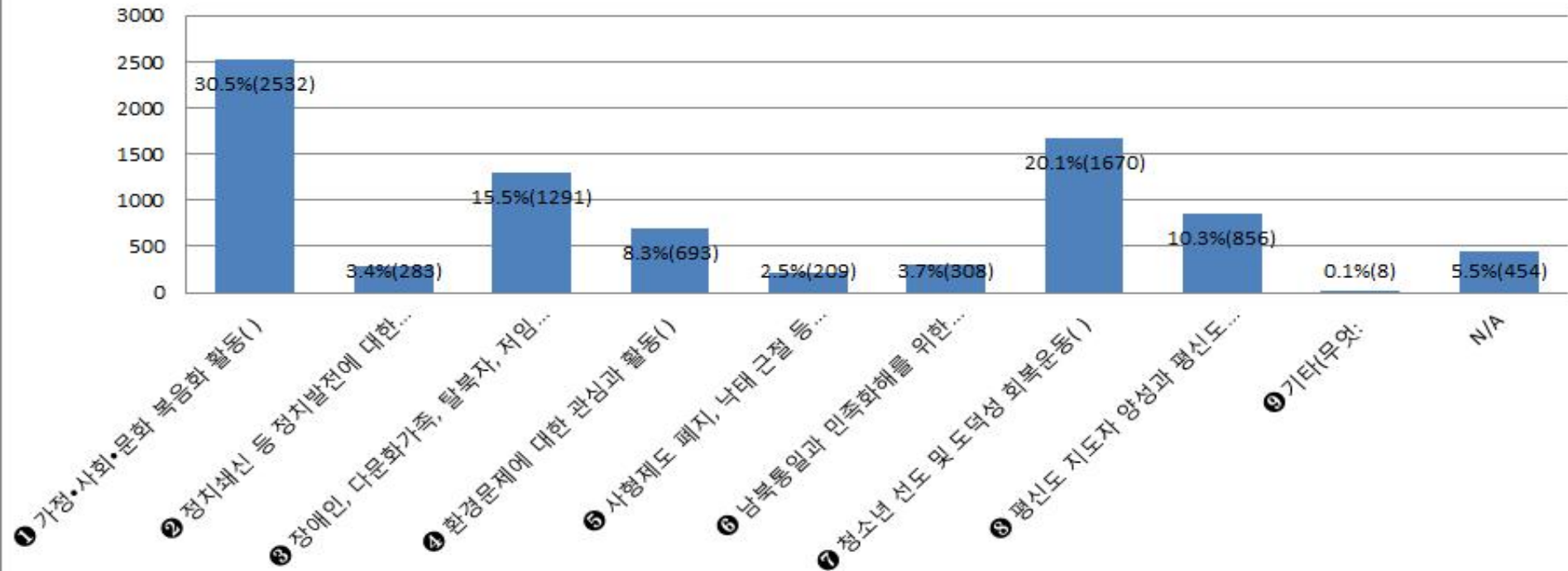


4.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다음의 방안 중 중요도  
순으로 세 가지만 골라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1. 한국평협은 1968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평협의 바람직한 활동을 위해 우선해야 할 중요도 순으로 세 가지만 골라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 부록Ⅲ: 유의도 분석

#### 성별 고해성사 교차분석

항목	① 성탄과 부활 판공성사 때만( )	② 1년에 4-5번( )	③ 한 달에 한번 이상( )	④ 간헐적으로( )	⑤ 거의 없다.( )	N/A	총계
남성	5.2(26)	36.6(183)	49.0(245)	3.6(18)	5.6(28)	0	100.0(500)
여성	8.4(74)	48.3(427)	37.1(328)	3.3(29)	2.6(23)	0.3%(3)	100.0(884)
소계	7.2(100)	44.1(610)	41.4(573)	3.4(47)	3.7(51)	0.2%(3)	100.0(1384)

\* $\chi^2$ 검증 P < 0.05

#### 성별 미사참례 교차분석

항목	① 일주일에 한번 주일미사( )	② 1주일에 2-3번( )	③ 매일( )	④ 간헐적으로( )	⑤ 성탄절, 부활절 등 특별한 때만( )	N/A	총계
남성	7.6(38)	35.3(176)	51.0(254)	3.4(17)	2.6(13)	0	100.0(498)
여성	15.7(139)	51.0(452)	28.0(248)	4.0(35)	0.9(8)	0.5(4)	100.0(886)
총계	12.8(177)	45.4(628)	36.3(502)	3.8(52)	1.5(21)	0.3(4)	100.0(1384)

\* $\chi^2$ 검증 P < 0.05

#### 성별 신앙의 해 선포이유 교차분석

항목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어렵듯이 알고 있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모른다.( )	N/A	총계
남성	23.3(116)	47.4(236)	20.1(100)	8.6(43)	0.6(3)	100.0(498)
여성	22.5(199)	48.6(430)	22.7(201)	5.2(46)	0.9(8)	100.0(886)
총계	22.8(315)	48.2(666)	21.8(301)	6.4(89)	0.8(11)	100.0(1384)

\* $\chi^2$ 검증 P > 0.05

성별 선교에 대한 의무감 교차분석

항목	① 매우 느낀다.( )	② 가끔 느낀다.( )	③ 별로 느끼지 않는다.( )	④ 전혀 느끼지 않는다.( )	⑤기타의견( )	N/A	총계
남성	35.1(175)	50.0(249)	11.4(57)	2.0(10)	0.2(1)	1.2(6)	100.0(498)
여성	41.9(370)	47.2(417)	8.8(78)	1.0(9)	0.2(2)	0.9(10)	100.0(886)
총계	39.4(545)	48.2(666)	9.8(135)	1.4(19)	0.2(3)	1.0(14)	100.0(1384)

\* $\chi^2$ 검증 P > 0.05

성별 천주교 신자라는 의식 교차분석

항목	① 항상 의식하고 생활한다.( )	②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	③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활한다.( )	N/A	총계
남성	85.3(425)	13.1(65)	0.4(2)	1.2(6)	100.0(498)
여성	89.3(789)	9.3(82)	0.3(3)	1.1(12)	100.0(886)
총계	87.8(1214)	10.6(147)	0.4(5)	1.2(16)	100.0(1384)

\* $\chi^2$ 검증 P > 0.05

성별 신앙의 위기 인식 교차분석

항목	① 매우 공감한다.( )	② 조금 공감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공감하지 않는다.( )	⑤전혀공감하지 않는다.( )	N/A	총계
남성	32.3(161)	38.6(192)	14.1(70)	10.4(52)	1.0(5)	3.6(18)	100.0(498)
여성	25.7(227)	41.1(363)	18.7(165)	9.4(83)	0.3(3)	4.9(45)	100.0(886)
총계	28.1(388)	40.2(555)	17.0(235)	9.8(135)	0.6(8)	4.4(61)	100.0(1384)

\* $\chi^2$ 검증 P > 0.05

세례년도와 미사참례 교차분석

항목	① 일주일에 한번 주일미사( )	② 1주일에 2-3번( )	③ 매일( )	④ 간헐적으로( )	⑤ 성탄절, 부활절 등 특별한 때만( )	N/A	총계
1960년대 이전	15.5(15)	59.8(58)	22.7(22)	2.1(2)	0	0	100.0(97)
1960년대 이후	14.5(128)	47.4(419)	33.3(294)	3.7(33)	0.9(8)	0.2(2)	100.0(884)
총계	14.6(143)	48.6(477)	32.2(316)	3.6(35)	0.8(8)	0.2(2)	100.0(981)

\* $\chi^2$ 검증 P > 0.05

세례년도와 신앙의 해 선포이유 교차분석

항목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어렵듯이 알고 있다.( )	③ 잘 모른다.( )	④ 전혀모른다.( )	N/A	총계
1960년대 이전	35.1(34)	53.6(52)	9.3(9)	2.1(2)	0	100.0(97)
1960년대 이후	24.4(216)	50.7(448)	19.2(170)	5.0(44)	0.7(6)	100.0(884)
총계	25.5(250)	51.0(500)	18.2(179)	4.7(46)	0.6(6)	100.0(981)

\* $\chi^2$ 검증 P < 0.05

세례년도와 선교에 대한 의무감 교차분석

항목	① 매우 느낀다.( )	② 가끔 느낀다.( )	③ 별로 느끼지 않는다.( )	④ 전혀 느끼지 않는다.( )	⑤ 기타의견( )	N/A	총계
1960년대 이전	56.7(55)	38.1(37)	3.1(3)	1.0(1)	0	1.0(1)	100.0(97)
1960년대 이후	39.4(348)	49.4(437)	8.9(79)	1.4(12)	0.1(1)	0.8(7)	100.0(884)
총계	41.1(403)	48.3(474)	8.4(82)	1.3(13)	0.1(1)	0.8(8)	100.0(981)

\* $\chi^2$ 검증 P < 0.05

세레년도와 천주교 신자 의식 교차분석

항목	① 항상 의식하고 생활한다.( )	②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 )	③ 전혀 의식하지 않고 생활한다.( )	N/A	총계
1960년대 이전	96.9(94)	2.1(2)	0	1(1)	100.0(97)
1960년대 이후	89.5(791)	9.3(82)	0.2(2)	1(9)	100.0(884)
총계	90.2(885)	8.6(84)	0.2(2)	1(10)	100.0(981)

\* $\chi^2$ 검증 P > 0.05

세레년도와 성별 신앙의 위기 인식 교차분석

항목	① 매우공감한다.( )	②조금 공감한다.( )	③ 보통이다.( )	④ 공감하지 않는다.( )	⑤전혀공감하지않는다.( )	N/A	총계
1960년대 이전	32.0(31)	39.2(38)	14.4(14)	8.2(8)	0	6.2(6)	100.0(97)
1960년대 이후	29.4(260)	42.1(372)	15.8(140)	7.9(70)	0.2(2)	4.5(40)	100.0(884)
총계	29.7(291)	41.8(410)	15.7(154)	8.0(78)	0.2(2)	4.7(46)	100.0(981)

\*\* $\chi^2$ 검증 P > 0.01

3-8 지금까지 '신앙의 해'를 보내며 느끼거나 바라는 바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로 세 가지를 1, 2, 3 번호를 기입해주시요.

항목	① 동체 중신앙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	② 형식적 행사 위주보다 신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③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④ 소외분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⑤ 교황 프란치스코의 사상과 철학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	⑥ '신앙의 해'를 더욱 뜻 깊게 하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다.( )	⑦ '신앙의 해'에 관한 더욱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	⑧ 성직자와 교리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	⑨ 성경과 교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	⑩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	N/A	총계
1순위	1254	1083	210	270	78	78	165	78	483	75	378	4152
2순위	290	514	280	384	42	168	256	68	318	24	424	2768
3순위	111	146	118	144	36	97	123	77	238	38	256	1384
총계	1655	1743	608	798	156	343	544	223	1039	137	1058	8304

\*ANOVA검증 P>0.05

※주 : 1,2,3순위에 따라서 3점, 2점, 1점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화한 것임

한국평협은 1968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평협의 바람직한 활동을 위해 우선해야 할 중요도 순으로 세 가지만 골라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① 가정·사회·문화·복지·보육·문화·활용( )	② 정치·새신 등 정치발전에 대한 관심과 활동( )	③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자, 저임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 )	④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 )	⑤ 사형제도 폐지, 낙태 등 인권·생명·보전 활동( )	⑥ 남북통일과 민족화해 노력( )	⑦ 청소년 선도 및 성도회복운동( )	⑧ 평신도 지도자 양성·평신도 교육 활동( )	⑨ 기타(무엇: )	N/A	총계
1순위	1986	114	522	171	57	102	663	345	6	186	4152
2순위	374	128	552	370	106	128	686	254	0	170	2768
3순위	172	41	217	152	46	78	321	257	2	98	1384
총계	2532	283	1291	693	209	308	1670	856	8	454	8304

\*ANOVA검증 P<0.05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다음의 방안 중 중요도 순으로 세 가지만 골라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① 물질만능주의 풍조( )	② 개인적 이기주의( )	③ 무신론적 과학의 발달과 문화적 속주의( )	④ 영성적 갈증을 지니지 못하는 교회( )	⑤ 사머니즘, 사주팔자 등 유사종교의 식만연( )	⑥ 종교의 책임 회피( )	⑦ 세상의 변화에 변통감함의 성직자들의 자세( )	⑧ 일부인들의 종교위선과 비리( )	N/A	총계
1순위	990	1014	1080	348	189	147	147	15	222	4152
2순위	272	606	768	358	232	180	140	0	212	2768
3순위	193	191	223	215	137	143	148	5	129	1384
총계	1455	1811	2071	921	558	470	435	20	563	8304

\*ANOVA검증 P>0.05

※주 : 1,2,3순위에 따라서 3점, 2점, 1점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화한 것임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음 다섯 가지 문제점 가운데서 가장 절박한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골라 심각한 순서로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① 늘어나는 쉬는 신자( )	② 주일 미사 참여자 수의 감소( )	③ 청소년과 젊은 신자의 감소에 따른 성직자 지원자 감소( )	④ 교회의 헌금의 감소와 교회재정의 궁핍화( )	⑤ 신자의 고령화( )	⑥ 기타(무엇: )	N/A	총계
1순위	2064	354	1065	51	417	27	174	4152
2순위	562	770	692	134	406	10	194	2768
3순위	175	239	285	142	387	12	144	1384
총계	2801	1363	2042	327	1210	49	512	8304

\*ANOVA검증 P>0.05

※주 : 1,2,3순위에 따라서 3점, 2점, 1점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화한 것임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음 다섯 가지 문제점 가운데서 가장 절박한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골라 심각한 순서로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① 물질만능주의( )	② 개인적이기주의( )	③ 무신론과 과학적 세계관의 발달( )	④ 영성적 성장을 해소하지 못하는 교회( )	⑤ 사마니즘 사주팔자 등 유사종교의식 만연( )	⑥ 종교의 사회적 책임 회피( )	⑦ 세상의 변화에 민감한 성직자들의 자세( )	⑧ 일부 종교인들의 위선과 비리( )	⑨ 성직자 중심주의적 사고와 평신도의 불만 증대( )	⑩ 기타(무엇: )	N/A	총계
1순위	1569	1089	162	249	42	75	84	153	102	6	621	4152
2순위	422	752	180	236	42	128	134	198	112	2	562	2768
3순위	98	106	153	174	40	78	88	170	159	2	316	1384
총계	2089	1947	495	659	124	281	306	521	373	10	1499	8304

\*ANOVA검증 P>0.05

※주 : 1,2,3순위에 따라서 3점, 2점, 1점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화한 것임

현재 한국교회도 신앙위기에 당면하고 있다면 그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도순으로 세 가지만 골라 1 2 3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① 물질만능주의( )	② 개인적이기주의( )	③ 무신론적과달과과학의문속적발화주의( )	④ 영성적갈증을해소해주시 못하는교회( )	⑤ 샤머니즘사주팔자등유사종교의식만연( )	⑥ 종교의사회적책임회피( )	⑦ 세상의변화에감한성직자들의자세( )	⑧ 일부종교인들의위선과비리( )	⑨ 성직자중심주의적사고와평신도의불만증대( )	⑩ 기타(무엇:)	N/A	총계
1순위	1569	1089	162	249	42	75	84	153	102	6	621	4152
2순위	422	752	180	236	42	128	134	198	112	2	562	2768
3순위	98	106	153	174	40	78	88	170	159	2	316	1384
총계	2089	1947	495	659	124	281	306	521	373	10	1499	8304

\*ANOVA검증 P>0.05

주: 본 점수는 1,2,3점으로 가중해서 환산한 것임

※주 : 1,2,3순위에 따라서 3점, 2점, 1점 가중치를 부여해서 점수화한 것임